

『獄中花』의 한국적 고유성과 게일의 번역 실천*

— J. S. Gale, “Choon Yang”(The Korea Magazine
1917.9~1918.8)의 번역용례를 중심으로

이상현·이진숙
(부산대학교)

1. 머리말

본고의 목적은 첫째, 게일(James Scarth Gale, 1863-1937)의 “Choon Yang”(이하 「춘향」으로 표기)에 수록된 개별 어휘단위의 차원에서 그 번역용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둘째, 서구와 동일하지 않은 문화 체계를 지닌 번역저본 『옥중화』 텍스트를 게일이 영어로 번역하고자 할 때 대면한 문제점들, 즉 게일이 번역자로 마주했던 곤경과 그 수행적 실천의 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¹⁾ 지금까지 게일 고소설 영역본에 관한 선행연구를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M0059)

1) J. S. Gale, “Choon Yang”, *The Korea Magazine* 1917. 9 ~ 1918. 8. 이하 영역본 「춘향」의 인용 쪽수는 *The Korean Magazine*의 발행 연도와 잡지의 쪽수로만 표기한다. 인용문의 강조와 밑줄은 필자의 것이다. ; 본고에서 게일의 영역본과 대비할 저본은 김진영 김현주 차중환 조영식 김희찬 편저, 『춘향전 전집』 15, 박이정, 2004, 9~140쪽에 수록된 단행본으로 출판된 보급서관본 활자본 『옥중화』(1914)이다. 이하 『옥중화』의 인용 쪽수는 이 책에 표시된 보급서관본의 쪽수에 의거한다. 또한 띄어쓰기 및 강조는 인용자의 것임을 밝힌다. ; 본고는 『옥중화』 원전과 게일의

보면 게일이 다수의 한국고소설을 번역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막상 그 실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텍스트의 정밀한 분석차원에서 번역저본을 확정하고 면밀한 저본대비 작업을 수행하여 번역양상과 특징을 도출한 사례는 지극히 한정적이다.²⁾ 본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게일의

번역본을 문장단위의 차원에서 저본대비를 수행한 후 그 누락 및 변용양상의 의미를 검토한 선행연구(이진숙, 이상현, 「게일(J.S.Gale)의 『옥중화』 번역의 원리와 그 지향점—J. S. Gale, “Choon Yang”(The Korea Magazine 1917.9~1918.8)에 누락 변용된 『옥중화』 속 언어표현의 의미」, 『비교문학』65, 한국비교문학회, 2015)의 후속연구이다. 즉, 개별 어휘의 차원에서 번역용례를 탐구하는 데 초점을 둔 연구이며, 본고에서 활용할 근대초기 이중어사전은 황호덕·이상현이 편찬한 『한국어의 근대와 이중어사전』 I~XI, 박문사, 2012이며, 【첨부자료 1】에서 제시한 약호에 의거하여 본문 중에 표시하기로 한다. 또한 본고에서 참고할 서구인의 민족지학은 편이상 1895년 이전 조선의 사회문화를 거론하고 있으며 서구인 한국학에 있어 일종의 대표적이며 연구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다음과 같은 3종의 중요저술로 한정하도록 한다. 사르르 달레, 안응렬, 최석우 역, 『한국천주교회사』, 한국교회사연구소, 1980(C. Dallet, *Histoire de L' Église de Corée*, Paris, 1874); 러시아대장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역, 『국역 한국지』, 전광사업사, 1984(Описание Кореи, St-Petersbourg, 1900, 3); 호머 헐버트, 신복룡 역, 『대한제국멸망사』, 집문당, 1999(*The Passing of Korea*, New York: Doubleday, 1906).

- 2) R. Rutt, *James Scarth Gale and his History of Korean People*, Seoul: the Royal Asiatic Society, 1972; 이상현, 『한국고전번역가의 초상, 게일의 고전학 담론과 고소설 번역의 지평』, 소명, 2013; 개별 연구에서는 주로 게일 <구운몽 영역본>과 판소리계 고소설 작품들에 대한 번역 작품이 검토되었다. 먼저 <구운몽 영역본>에 대한 선행논문은 다음과 같다. 정규복, 「구운몽 영역본考 - Gale 박사의 *The Cloud Dream of the Nine*」, 『국어국문학』 21, 국어국문학회, 1959; 장효현, 「한국고전소설영역의 제문제」, 『고전문학연구』 19, 한국고전문학회, 2001; 「구운몽 영역본의 비교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6, 고려대학교BK21 한국학연구단, 2004; 오윤선, 「韓國 古小説 英譯의 樣相과 意義」,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한국 고소설 영역본으로의 초대』, 지문당, 2008]; 이상현, 「동양 이문화의 표상 일부다처를 둘러싼 근대 <구운몽> 읽기의 세 국면-스콧-게일-김태준의 <구운몽> 읽기」, 『동아시아고대학』 15, 동아시아고대학회, 2007; 최근 게일의 판소리계 고소설 영역본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일련의 연구성과들이 있다. 이상현, 「춘향전 소설어의 재편과정과 번역」, 『고소설연구』 30, 한국고소설학회, 2010; 권순궁, 한재표, 이상현, 「『게일문서』(Gale, James Scarth Papers) 소재 <심청전>, <토생전> 영역본의 발굴과 의의」, 『고소설연구』30, 한국고소설학회, 2010; 이상현, 「문혀진 <심청전> 정전화의 계보」, 『고소설연구』32, 한국고소설학회, 2011. 권순궁, 「한국 고전소설의 외국어 번역양상과 의미-J. S. 게일의 <토생전>번역을 중심으로」, 『코기토』77,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2015.

번역작품, 「춘향」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물론 「춘향」의 그 전반적인 번역양상은 그가 한국의 한문고전을 번역하면서 보여준 제 양상과 크게 변별되지 않았다. 따라서 번역본이 지닌 그 개괄적 특징은 잘 밝혀진 편이다. 리처드 러트(Richard Rutt)는 「춘향」의 번역양상과 그 번역사적 의의의 골자를 잘 짚어주었다. 그는 「열녀춘향가」(“The Song of a Faithful Wife, Ch'un-hyang”)(1974)의 서문에서 “춘향의 영역본이 몇 개 있지만 번역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본은 계일의 영역본”이라고 소개하면서 계일이 “1911년 출판된 이해조의 옥중화를 충실하게 번역했다”³⁾ 고 평가했다. 러트의 지적처럼, 「춘향」은 19세기 말 ~ 20세기 초 서구권의 <춘향전> 번역사 속에서 <춘향전>의 완역본이자 직역본이란 번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⁴⁾ 이상현은 이러한 러트의 간헐적인 지적으로부터 한결 더 진전된 형태의 후속 연구 성과를 제출했다. 즉, 당시 한국의 언어질서, 「춘향」을 전후로 한 고소설번역사의 맥락을 규명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춘향」의 번역양상을 포괄적이며 실증적으로는 고찰하지는 못했다. 여전히 “계일이 『옥중화』를 얼마나 충실히 번역했는가?”란 본질적인 물음에 부응하는 연구 성과는 도출되지 못한 형국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이상현의 논문은 번역저본 『옥중화』와의 대비검토를 통해 살필 그 누락 및 변용양상을 정리한 도표를 논문의 부록으로 첨부했다.⁵⁾ 그렇지만 이 도표만으로는 계일이 『옥중화』를 얼마나 충실히 번역하고자 했는지를 충분히 살필 수 없다. 왜냐하면 「춘향」에는 ‘이 도표 속에 누락된 항목을 제외한 모든 것이 충실히 번역되었다’란 논지로는 한정할 수 없는 한국어와 영어 어휘 사이에서 이루어진 무수한 계일의 번역 실천들이 잠재되어 있기 때

3) Richard Rutt and Kim Chong-un, *Virtuous Women : Three Masterpieces of Traditional Korean Fiction*,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974, p.238 ; "There have been several English versions of Ch'unhyang. The only one which is a translation is that published in the Korea Magazine in eleven instalments from September 1917 to July 1918.……He(Gale-역자) made a faithful rendering of Yi Hae-jo's Okchunghwa, published in 1911."

4) 현전하는 <춘향전>의 영역본의 서지는 오윤선, 「「춘향전」 영역본의 고찰: 삽입시기를 중심으로」, 『판소리연구』23, 2007, 401~423쪽, 403쪽을 참조.

5) 이상현, 「춘향전 소설어의 재편과정과 번역」, 앞의 책, 413~417쪽.

문이다. 이는 원본과 번역 텍스트 사이 누락과 변용양상을 살피는 차원만으로는 고찰될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우리의 눈에 원본에 대한 충실하고 평범한 번역용례로 보이는 사례 역시도 당시로서는 번역자 게일이 마주했던 고민과 그에 대한 그의 해결방식이 담겨 있었던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서구권의 민족지학과 게일의 한국어학적 성과물을 「춘향」과 겹쳐 읽으며 당시의 번역지평을 상정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당시의 고소설에 대한 번역지평과 그 속에서 이루어진 게일의 번역 실천이란 맥락에서 「춘향」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본고에서 「춘향」의 모든 언어표현을 모두 고찰할 수 없기에, 판소리계 고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옥중화』가 지닌 저본 특성에 상대적으로 더욱 초점을 맞춰보고자 한다. 이는 넓게 본다면 국문이라는 표기문자의 문제, 한국과 한국인이라는 소설적 배경의 문제, 많은 한국인이 향유한 작품이라는 대중성의 측면에서, 과거 서구인이 <춘향전>을 비롯한 국문고전소설을 주목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즉, 『옥중화』를 비롯한 <춘향전>전반에 내재된 한국적 고유성의 문제와 깊이 관계된다. 게일의 「춘향」 서문을 펼쳐보면, 다른 한국고전서사 번역본의 서문과는 다른 변별점이 드러난다. 게일에게 있어 한국고전서사의 번역목적은 한국인의 내면이자 한국문화의 심층, 한국문화에 내재된 유교, 불교 등의 종교문화를 서구인에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물론 게일은 「춘향」을 통해서도 한국어성이 지키고자 한 ‘췌!’이라는 유교적 덕목이자 동양의 이상을 전하고자 했다. 그렇지만 게일은 그 바탕과 토대를 이루는 사상의 문제보다 춘향의 열 실천 자체를 주목했으며 이는 게일의 『옥중화』 번역원리로도 잘 구현된 바이다.⁶⁾ 그렇지만 **게일이 인식한 한국적 고유성**은

6) 「춘향」의 서문에서 해당부분을 발췌해보면 다음과 같다. “The heroine was true to her principles in the midst of difficulties and dangers such as the West knows nothing of……May this ideal of the Orient, dearer to so many than life itself, help us to a higher appreciation of the East with its throbbing masses or humanity.” (1917, p.382). ; 이와 대비되는 게일의 서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들 수 있다. J. S. Gale, “Preface”, *Korean Folk Tales — Imps, ghosts and fairies*, New York : J. M. Dent & Sons, 1913, p.7. ; J. S. Gale, “Notes on relation to Cloud Dream of Nine-Introduction”, Gale, James Scarth Papers【Box8】(이상현, 앞의 책, 351쪽.); 게일 『옥중화』 번역의 원리에 관해서는

결코 한문과 분리된 국문표현이 아니란 변별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옥중화』에 내재된 한문전통과 관련된 한국적 고유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는 본고의 2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후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한문고소설이 아니라 국문고소설의 언어표현을 번역하고자 했을 때, 한국과 한국인이라는 소설적 시공간을 번역하고자 했을 때, 계일이 대면한 독특한 문체와 대응방식을 고찰하도록 한다.** 정리하자면, 본고는 「춘향」을 원전인 『옥중화』와 비교함으로써 계일이 원전의 고유명사와 신분, 문물, 문화 고유어, 그리고 원전의 언어유희를 영어로 번역하는 방식, 어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번역 등을 종합적이며 실증적으로 점검해보도록 할 것이다.

II. 『옥중화』의 언어표현에 내재된 한문전통과 한국적 고유성

여느 <춘향전>이본들보다 상대적으로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옥중화』를 저본으로 한 「춘향」은 중국을 배경으로 한 계일의 <구운몽 영역본>보다 영어권 독자들에게 한국어, 한국문화와 문물에 접근할 수 있는 소중한 통로였다. 왜냐하면 『옥중화』에는 한국이란 근대 국민국가 단위의 민족문화의 관점으로 조망할 때, 『구운몽』보다 상대적으로 명징하게 드러나는 일종의 한국적 고유성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근대초기 한국의 문학사가들이 <춘향전>을 설화가 아닌 한 편의 문학작품이자 고전이란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이 발견하게 되는 <춘향전>의 언어표현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風采 容貌 衣服 器具로부터 人物의 居止態도의 觀察은 極히 精細에 入
하얏고 期談話行動의 形態를 寫함에는 主觀客觀으로 各其事情을 極美하게 寫出하얏스며⁷⁾

이진숙, 이상현의 앞의 글 참조.

7) 안자산, 『朝鮮文學史』, 韓一書店, 1922, 114쪽.

『춘향전』에는 그 시대의 모든 사회층이 모두 무대에 오르는 만큼 각종의 생활의 단면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거기에는 우선 간간이 보이는 物産名을 보아도 방 세간으로 龍穢, (中略) 요리와 과일명으로 가리짐·계육·찜…(中略)酒類로 포도주·자하주 (中略) 蓮葉酒 등이요, 장신구류로 한산 세저 (中略) 옥지환 등 실로 놀라운 種別에 미쳐 의식 기완의 호사를 다한 시민들의 손에 근대적 소유관계의 맹아를 보게 되는 것이요, 이러한 의식 기완도 다소 종래보다 개량된 기계로 다소 상품적 전제하에 가공하는 수공업의 맹아를 보게 된 것이다.⁸⁾

『옥중화』[를 비롯한 <춘향전>전반]에는 상기 한국문학사가의 지적처럼, 다양한 신분의 모습, 조선의 문물 및 문화 그리고 그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생한 생활현장과 삶의 단면들이 담겨있었다. 그렇다면 계일은 이렇듯 <춘향전> 소설어의 한국적 고유성을 번역 당시 인식하고 있었을까? 대답은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계일 이전부터 알렌(H. N. Allen), 애스턴(W. G. Aston),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 등의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이미 잘 드러나는 모습이다. 외국인의 한국고소설에 대한 번역 혹은 이에 대한 비평적 담론을 정리해보면, 한국어 통사구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인을 주인공으로 삼은 국문고소설 작품이 애초에 더욱 선호되고 있었음은 그리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⁹⁾ 즉, 작품 속에 반영된 당시의 한국인, 한국문화 및 사회제도, 이를 표상해주는 국문표현은 그들의 작품선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준거였다. 요컨대 근대 국민국가단위의 민족문화를 구성하는 언어내셔널리즘과 국민문학이란 관념은 19세기 말 한국을 접촉한 외국인의 한국문학론 속에서도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논리이자 관점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계일의 『옥중화』 번역에 개입된 한국적

8) 김태준, 박희병 교주, 『증보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192쪽.(『朝鮮小說史』, 清進書館, 1933; 증보판: 學藝社, 1939.)

9) 이 점에 대해서는 이상현, 『『조선문학사』출현의 안과 밖 : 재조 일본인 고소설론의 근대 학술사적 함의』, 『일본문화연구』 40집, 동아시아일본학회, 2011, 461~467쪽과 이상현, 이은령, 『19세기 말 고소설 유통의 전환과 ‘민족지’로서의 고소설: 모리스 쿠랑 『한국서지』 한국고소설 관련 기술의 근대 학술사적 의미』, 『비교문학』 59집, 한국비교문학회, 2013, 40~55쪽에 상론되어 있다.

고유성의 문제는 이러한 외국인들의 논리와는 다른 변별점이 있기에, 이를 먼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게일은 늘 **한국인의 언어생활과 한국매체 속 한국어문체에 관심을 지니고 있었으며 실제 한국의 어문질서 속에 개입한 인물이었다.** 물론 게일 역시도 <심청전>, <토생전>과 같은 한국 고소설 작품이 한문(한자)을 해독할 수 없는 여성 등이 읽는 대중적 독서물이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가 생각한 한국어의 고유성에 대한 감각은 알렌, 애스틴, 쿠랑, 한국문학사가의 한국어문학에 관한 공통적인 비평적 감각 또는 한자·한문과 분리된 토착어를 중심으로 사유하는 오늘날 우리의 언어적 직관과는 다른 것이었다. 게일은 자신의 사전편찬경험을 통해 1900년경 한국어 어휘의 전체상을 어느 정도 상정할 수 있었다. 『韓英字典』(1897)의 구성(1부 한국어-영어사전, 2부 한자-영어사전)이 잘 말해주듯, 그의 언어적 직관 속에서 한국적 고유성은 한문고전을 포괄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한자(어)를 배제할 경우 한국어문체의 성립이 불가능한 형편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¹⁰⁾ 더불어 게일의 한문고전 학습 및 번역에는 한문(자)을 매개로 한 한국문어를 향한 지향점이 분명히 존재했다. 일례로 20세기 초 “한자의 상형성을 통한 의미확립”과 “전치사와 시제 등을 나타내는 한글어미와 연결사”로 구성된 국한문체가 당시 매체에 있어서 공식적인 문체일 수밖에 없던 사정을 그를 비롯한 초창기 성서번역가들은 잘 알고 있었다.¹¹⁾ 게일이 편찬한 『유몽천자』를 통해 이러한 정황 속에서 한문-민족어의 결합을 통해 한국어 문체를 구축하고자 한 그의 실천을 엿볼 수 있다.¹²⁾ 게일은 한국의 국한문혼용문을 언문, 한

10) J. S. Gale, “The Influence of China upon Korea,”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Royal Asiatic Society* 1, 1900, p.14. ; 즉, 게일이 이 글에서 제시한 『韓英字典』의 총량에 의거하면, 32,789개의 한국어휘 속에서 24,417개가 한자어였으며, 10,850개의 한자 중에서 고유한 한국어로 풀이될 수 있는 경우는 7,700개의 한자였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게일이 체험한 한국의 언어질서 속에서 한문과 국문은 등가교환이 성립가능한 대등한 언어가 아니었다.

11) 이 점에 대해서는 H. G. Underwood, 이만열·육성득 옮김, 『언더우드 자료집』Ⅲ,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7, 146~149쪽을 참조.

12) 이 점에 대해서는 임상석, 「한문과 고전의 분리, 번역과 국한문체 — 게일의 『유몽천자(漏蒙千字)』 연구」, 『고전과 해석』16,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4를 참조.

문과 함께 한국의 “제 3의 언어[문어]”로 규정했으며 한국인이 3/4은 눈으로 읽고, 1/4은 귀로 들어 이해하는 언어로 인식했다.¹³⁾ 『옥중화』 역시 이러한 국한문혼용문체란 공통된 특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게일에게 번역저본으로는 유용한 텍스트였다. 또한 『옥중화』를 번역·연재할 때 게일은 원전이 최초로 연재되었던 지면이며, 그곳에 전도광고를 내기도 했던 『매일신보』의 열렬한 애독자이기도 했다. 게일은 이 신문에는 국한문 및 순수한 언문글쓰기가 지면에 따라 나누어 배치되어 있고 고전·근대의 모든 필요한 어휘들이 이곳에 있기에, 따라서 당시 한국어 학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신문을 매일 한 시간 정도 읽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¹⁴⁾ 그가 『옥중화』를 번역한 한국이란 시공간은 더 이상 신문과 소설이 부재한 나라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반영하여 둘째, 게일은 『옥중화』를 설화가 아니라 한 편의 문학작품으로 번역하고자 했다는 점이다.¹⁵⁾ 결과적으로 본다면, 게일의 번역 실천은 한국문학사자들이 발견한 한국적 고유성이 담긴 『옥중화』의 언어표현을 충실히 재현하는 행위였다. 다만, 국한문혼용체로 씌어진 이해조의 『옥중화』를 충실히 번역하고자 할 때 게일이 직면한 문제는 한국의 한문전통과 연관된 언어표현의 문제가 결코 배제되지 않았을 따름이다. 한국적 고유성을 담은 『옥중화』를 구성하는 언어는 한자, 한문전고와 한문통사구조가 텍스트에 개입된 언어로 한문전통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언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게일은 『옥중화』 텍스트 속 소설어의 한자어 혼과 한문통사구조의 문장을 모두 살려서 번역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전체적으로 「춘향」은 『구운몽』, 『천예록』 등에 대한 게일의 한국고전서사 번역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유사한 특징, 즉 “매우 장식적인 문어체(ornate diction)”이며 그

13) J. S. Gale, 신복룡 옮김, 『전환기의 조선』, 집문당, 1999, 107~110쪽.(*Korea in Transition*, New York : Eaton & Mains, 1909)

14) J. S. Gale, "Difficulties of the Language," *The Korea Magazine*, 1918. 9., pp.386~387. ; 게일이 『매일신보』에 1910년 10월12일부터 10월29일까지 게재한 전도광고문은 유영식 편역, 『착흔 목자: 게일의 삶과 선교』2, 도서출판 진흥, 2013, 328~334쪽에 수록되어 있다.

15) 이 점에 대해서는 이상현, 『한국고전번역가의 초상, 게일의 고전학 담론과 고소설 번역의 지평』, 소명출판, 2013, 369~389쪽 참조.

의 번역문은 상당히 긴 만연체의 문장이란 특징을 지닌다. 이는 “원전의 내용을 字字句句 그대로 번역”하는 게일의 성향으로 인한 것이다.¹⁶⁾ 게일은 『옥중화』를 연재하기 이전 동일 잡지인 *The Korea Magazine*에 한국문학에 관한 연구방법론을 제시했는데, 이 글은 게일이 한국문학을 번역할 때 대면하게 되는 문제적 현상을 집약적으로 제시해주는 논고이기도 하다.¹⁷⁾

그는 한국문학을 공부하려는 이는 한자(Chinese Character)의 매개를 거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 이유는 첫째, 국문(Eun-mun, 언문)으로 씌어진 문학이 거의 없다는 사실 때문이고, 둘째, 설령 간혹 있는 경우에도 이곳에 배치된 한국음가로 표기된 한자와 한자들의 조합은 어떻게 본다면 순수한 한문 그 자체보다 읽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게일은 『옥중화』 속의 한문통사구조가 아닌 한자를 번역할 때도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다. 애초에 한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은 한글정서법의 규범을 찾고자 할 때 그들이 발견한 전범은 『전운옥편』과 같은 운서였다. 따라서 한국어에서 한자는 번역의 최소 단위였다. 이로 인해 낱글자(한국어)와 어휘(영어)라는 서로 다른 번역의 단위 사이를 조절하는 것은 게일의 번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한자를 가장 충실히 번역하는 방식은 음역(Transliteration)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 한자음을 음역하는 것은 소리를 단순히 옮겨 적는 차원 이상의 문제들을 포함한다. 그것은 음성을 음역함에 있어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규범화된 표기와 실제 발음 사이를 선택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게일은 중국식 한자음이 아니라 한국식 한자음을 표기했는데, 이는 일종의 옥편(한자-영어사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의 이중어사전의 2부(Gale 1914)에서 규범화된 한국식 한자음에 기반하고 있다. 나아가 게일의 『韓英字典』(1911)은 한국의 한자음뿐만 아니라 한글읽기 전반을 안내해주는 길잡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 읽기의 방식은 사전에 첨부된 ‘언문 대조 일람표’

16) R. Rutt, *James Scarth Gale and his History of Korea People*, Seoul : the Royal Asiatic Society, 1972 p.60. ; 장효현, 「구운몽 영역본의 비교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6, 고려대학교BK21 한국학연구단, 2004; 「한국고전소설영역의 제문제」, 『한국고전소설사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을 참조.

17) J. S. Gale, “Korean Literature(1) -How to approach it”, *The Korea Magazine* 1917. 7. pp.297~298.

(【첨부자료2】)에 종합되어 있다. 그렇지만 게일의 『옥중화』 속 모든 음역표기는 ‘언문 대조 일람표’ 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작품의 제명이자 주인공의 이름, 春香의 음역문제를 들 수 있다. 게일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음역방식이 아닌 “Choonyang”이라고 음역했다. 게일의 음역을 소리 나는 대로 읽어보면, “춘향”이 아닌 “춘양”이다. 왜 그랬던 것일까? 그 이유는 과거 춘향을 “Choonyang”으로 번역한 알렌의 용례를 게일이 이어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를 게일이 수용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존재한다. 게일의 이중어사전(Gale 1911)에 춘향은 다음과 같이 하나의 고유명사로 등재되어 있다.

표제항 : 춘향이

풀이 : The name of a famous dancing girl said to have lived in
Sukjong's reign.

상기의 표기를 【첨부자료2】의 ‘언문 대조 일람표’에 의거하여 영어로 표기해보면, ‘Ch’un Hyang’이다. 하지만 ‘언문 대조 일람표’ 나아가 개신교 선교사에게 한글표기는 소리를 단순히 음사화한 표기가 아니라, 독자가 눈으로 읽는 일종의 ‘규범화’된 것이며 동시에 ‘시각화’된 표기, 일종의 ‘형태음소적인 표기’였다. 또한 ‘언문 대조 일람표’만으로는 한국어의 음소들이 구현되는 모든 음성적 상황을 포괄해주지는 못하였다. “Choonyang”은 한글표기가 아니라 한글표기의 실제 음성적 실현을 음역한 것이었다. 그가 체험했던 “춘향”에서 ‘ㅎ 약화 및 탈락’으로 드러나는 한국인의 음성을 음역한 표기였으며, 이러한 음역의 방식은 고유명사뿐만 아니라 “Kwang[북소리], T’ong![춧소리], Choi-roo-roo![심벌즈 소리]”와 같은 의성어 등에도 동일했다. 또한 게일은 한국어 어휘를 음역으로 나타낼 때(기생[Keesang], 술[Sool], 리[Lee 또는 lee], 냥[yang], 마부[Mapoo], 아문[yamen], 임자[Imja], 을축[Eulchook]) 그리고 한시의 개별 한자를 음역할 때(안수해[Ansoo hai])에 이탤릭 표기를 했다. 물론, 그가 이렇듯 이탤릭 표기를 한 이유는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이탤릭 표기를 통해서 이 어휘들이 한국어란 사실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론된다. 이러한 이탤릭 표기는

영어권 독자에게 있어 영어가 아닌 한국어 음이라는 사실과 그 이질성을 더 생생히 전달해주는 셈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게일은 한국인의 음성과 목소리와 같은 한국적 고유성을 영어로 충실히 재현하고자 한 셈이다.**

『옥중화』에서 보이는 게일의 번역 실천은 ‘한문’과 ‘국문’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으로 해명할 수 없는 지점을 지니고 있다. 다만 게일의 한문고전 학습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구어를 기반으로 한 한국문어의 구사를 위한 것이었다. 또한 한문고전 학습 속에는 한국인과 게일 사이에 이루어진 구어적 상황이 놓여있다. 게일이 번역하고자 한 대상 시조 및 고소설, 그 속에 내재된 한자어와 한문은 이와 동일한 상황, 동아시아 공동문어를 한국화한 고유성이 담겨 있었다. 『옥중화』 속에 개입된 한문맥은 어디까지나 한국어 통사구조 속에서 재현되는 것이었다. 「춘향」에서 보이는 다음과 같은 번역용례는 그 실상을 잘 보여준다.

- ① 道令(도령)님 前(전)에 雁隨海(안슈희) 蝶隨花(접슈화) 蟹隨穴(희수혈)이라 옛주어라 (13쪽)
Please say to him. *An soo hai; chup soo wha; hai soo hyol.*(1917, p.400)

- ② 雁隨海(안슈희)라 흐는 것은 기러기 雁字(안즈) 싸를 隨字(슈즈) 바다 海字(희즈) 分明(분명)하고 蟹隨穴(희수혈)이라 흐는 것은 게 蟹字(희즈) 싸를 隨字(슈즈) 구멍 穴字(혈즈) 분명하니 (14쪽)
An soo hai means an for wild-goose, soo for follow, and hai for sea, the wild-goose follows the sea; chup soo wha means chup for butterfly soo for follows, and wha for flower, the butterfly follows the flower. As for hai soo hyol, hai means crayfish, soo means follow, and hyol means rock crevice, the sea-shell seeks the rock-crevice.(1917, p.401)

①은 춘향이 말하고 싶은 바를 한시를 통해 표현한 것을 방자가 이몽룡에게 전하는 내용으로 한시가 음역되어 있다. ②는 방자가 전한 9글자의 한시를 듣고 이몽룡이 한시를 구성하는 개별한자의 훈을 번역하고, 그 문장의 내

용을 풀이하는 내용이다. ㉠에서 게일은 한시문에 “*An-soo-hai etc*”라는 주석을 달았다. 또한 게일은 주석을 통해 유가지식층인 이몽룡만이 인지할 수 있고 무식한 방자는 이를 모르는 소설적 상황을 풀이해 주었다.¹⁸⁾ 이렇듯 한자음으로 제시된 본래의 문맥을 번역해준 셈이다. 위의 ㉠과 ㉡는 『옥중화』 속 한자와 한시문이 영어로 번역되는 두 가지 방식을 잘 보여준다. 그것은 ‘한자음을 음역하느냐 아니면 한자의 훈을 풀어서 번역하느냐’란 선택의 문제이며, 또한 한국인의 구어상황 속에서 실제 한문고전이 구현되는 양상이기도 한 것이다. 게일의 이러한 번역실천은 한국인의 회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한문고전의 흔적을 찾는 작업이며 동시에 한문고전 속에 들어있는 한국의 고유성, 한국화된 한문고전세계를 탐색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1916년에 발행한 게일의 문법서를 보면, 그 속에는 한국어의 관용표현으로 속담과 함께 사자성어를 비롯한 한문성어들이 함께 포괄되어 있다.¹⁹⁾ 나아가 『옥중화』 속의 사자성어는 게일이 편찬한 문법서와 이중어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표현들이 함께 있다. 먼저 사자성어를 살펴보면, 여기서는 음역보다는 한자의 훈을 그대로 풀어서 번역하는 방식이 생산적일 것이며, 게일 역시 후자의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그러한 번역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 때 게일이 전후 맥락상 독자가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번역을 제시해주며 안내해 주는 모습이 보인다.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 어-어엽부다 어-어엽부다 侵魚落雁(침어락안)이란 말을 과히 출가 향
옛더니(86쪽)

Pretty she truly is! Such as you live! She'd make the fishes to

18) *An-soo-hai etc*. These nine syllables are given according to the sound of the Chinese ideographs composing them; and while, correct, as poetic composition they could not be understood by an uneducated person, though a good scholar would soon unravel their mystery. (1917, p.401)

19) J. S. Gale, *Korean Grammatical Forms*, Seoul: The Korean Religious Society, 1916, pp.127~167, pp.235~321을 보면, 각각 “Korean Proverbs”라는 제명으로 200개의 속담과 “Colloquial Moon-Ja Sentences”라는 제명으로 321여개의 한자성어가 정리되어 있다.

sink and the wild-geese to drop from the sky(1918. pp.26-27)

- ④ 翰林(한림)이惶恐(황공)호야 叩頭謝恩(고두사은) 엇즈오디(112쪽)
This appointment to the Hallim and the high honours of
Commissioner, overpowered Dream-Dragon. He prostrated
himself in gratitude before His Majesty and said, (1918, p.126)

번사또는 관아로 들어서는 춘향을 보고 ‘침어락안’할 미인이라 감탄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침어낙안(侵魚落雁)’은 “미인을 보고 물 위에서 놀던 물고기가 부끄러워서 물속 깊이 숨고 하늘 높이 날던 기러기가 부끄러워서 땅으로 떨어졌다”는 뜻의 아름다운 여인의 용모를 이르는 말이다. 게일은 이것을 ③처럼 축자역하였지만 독자는 바로 앞의 “Pretty she truly is!”를 통해 이것이 아름다운 미인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유사한 번역 방식이 이몽룡이 어사 제수를 받을 때 임금 앞에서 “고두사은(叩頭謝恩)”에도 나타난다. ‘고두사은’이란 “머리를 조아리며 은혜에 감사함”이란 뜻으로 게일은 이 표현을 ④처럼 축자역하지만 전후 맥락을 통해 독자는 신하가 임금에게 감사의 의미로 취하는 행위로 유추할 수 있다. 사자 성어에 대한 이러한 번역의 모습은 한국의 속담에도 동일하다. 어사또가 된 이몽룡이 춘향의 절개를 시험하자 춘향은 다음과 같이 일갈한다.

- ⑤ 草綠(초록)은 同色(동식)이요 가지도 게 편이라(178쪽)
Similar trees are all of a similar colour; crabs and crayfish are the
same in kind"(1918, p.332)

게일은 이 한국 속담을 영어권 독자에게 익숙한 유사한 의미의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로 번역하지 않고²⁰⁾ ⑤처럼 축자역하지만 전후 맥

20) Ibid, p.147를 보면, “초록은 흰 빛 칠다”에 대하여 “The green of grass in all of one shade”라고 축자적으로 풀이했다. 더불어 그 관용적 의미를 “사슴은그동류끼리도하흔단말”로 한국어 풀이를 제시하고, 가장 유사한 영어의 관용적 표현(“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으로 풀이했다. 즉, 게일의 『옥중화』번역은 이렇듯 문법서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풀이와는 변별되는 것이다.

락을 통해 원전의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고 영어권 독자는 영어식 표현과는 다른 새로운 표현들을 접하게 된다. 게일의 번역은 『옥중화』의 한국적 고유성, 원전이 보여주는 고전소설의 언어세계, 한국화된 한문고전세계를 이처럼 충실히 재현하고자 했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옥중화』 소설어에 대한 음역의 예들과 원전 속에 담긴 한국문화 및 문물을 충실히 옮기고자 한 「춘향」의 번역용례에는 이러한 게일의 지향점과 번역자로 그가 대면했을 곤경들이 잘 드러나 있다.

Ⅲ. 『옥중화』 소설어에 대한 음역(Transliteration)의 문제들

1. 고유명사의 음역

먼저 『옥중화』 소설어를 음역한 게일의 번역 실천을 살펴보고자 한다. 게일은 『옥중화』의 고유명사 중에서 중국의 인명과 지명을 생략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게일이 한국문학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한국문학에 배치된 표의 문자(ideograph) 한자 혹은 한자의 조합을 축자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것보다, **중국의 역사와 신화를 끊임없이 참조하여 한국문학을 이해하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²¹⁾ 즉, 한국문학에서 중국고사는 이처럼 중요한 핵심이었다. 이렇듯 게일이 보기에 한국문화 속에 차지하는 중국고전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는 첫째, 1911년 게일이 출판한 한영이중어사전의 개정판이다. 그는 개정작업에서 1897년판보다 대략 10,000 항목 표제항을 추가했는데, 이는 한국어의 고유명사 즉, 중국 및 한국의 인명·지명이었다.²²⁾ 또 하나의 사례는 『옥중화』가 연재된 동일 잡지에 수록된 「한국의 유명한 여성들」(“Korea's Noted Women”)이란 연재물이다. 여기서 게일이 이야기한 인물들은 한국의 여성이 아니라 “女媧氏(Yo-Wha-Si), 娥黃, 女英(A-Whang and Yu-yung), 太姪/太女似(T'ai-im, T'ai-sa), 王昭君(Wang So-Koon), 西

21) J. S. Gale, “Korean Literature(1) -How to approach it”, pp.297~298.

22) 황호덕·이상현, 「게일(J.S.Gale), 한영사전(1897~1931): ‘한국어’의 새로운 형상을 만들다」, 부산대 점필재연구소 고전번역학 센터 편, 『동아시아, 근대를 번역하다: 문명의 전환과 고전의 발견』, 점필재, 2013

王母(Su wang mo), 楊貴妃(Yang Kwi-Pi), 西施(Su-si), 卓文君(T'ak moon-koon)”와 같은 중국의 여성들이었다.²³⁾

요컨대 『옥중화』의 중국인명과 지명은 외국의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고전적 사유와 문화체계에서 분리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셈이다. 게일은 중국인명인 서시, 왕소군, 설도, 탁무군 등을 각각 “Sosee(Sawsee), Wang Sogun, Soldo, Tak Mungun” 등으로 음역한 후 이를 영어권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주로 각 인물들에 대해 설명한다. “천황씨(The Celestial Emperor), 지황씨(The Terrestrial Emperor)”를 제외한다면 게일이 채택한 방식은 어디까지나 음역과 한국문학에 이르는 길잡이로 고사 속의 중국인명과 지명을 설명하는 주석방식이었다. 『옥중화』에서 중국인명에 대한 음역의 방식과 주석 여부, 이중어사전의 등재양상을 함께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옥중화』	「춘향」의 음역용례	주석 여부	『한영이중어사전』의 등재양상 (Gale(1911))
西施	Sose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제항 : 서시 ▪ 풀이 : A famous woman of ancient China
王昭君	Wang Sogun	○	×
薛濤	Soldo	○	×
文君	≡ Tak Mungun	○	×
杜牧之	Toomokche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제항 : 두목지 ▪ 풀이 : A. D. 803-852. A celebrated poet, distinguished by from 두보 by the title 少杜 or young 두.
巢父	Soboo(Nest-Father)	○	×
許由	Hoyo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제항 : 허유 ▪ 풀이 : A devoted servant of Yo of

23) 인명 순서대로 *The Korea Magazine*, 1917, p.26-28, p. 60-63, p.154~156, p. 218-219, p. 295-297, p. 345-347, p. 389-390, p. 438-439. 이에 대한 검토는 최윤희, 「『The Korea Magazine』의 「한국에서 이름난 여성들」 연재물에 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37, 비교문화연구소, 2014를 참조.

			ancient China.
蘇子瞻	Sojachum	○	×
莊周	≡Changj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제항 : 장궈(莊子) ▪ 풀이 : A famous Taoist who lived in the 3rd and 4th centuries B. C. and wrote the 남화경.
夏禹氏	≡Ha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제항 : 하우씨 ▪ 풀이 : The Great U King of the Ha dynasty(B. C. 2205.)
寧戚	Yongchuk	○	×
孟浩然	Maing Hoyon	○	×
李太白	Yee Taipaik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제항 : 리태백 ▪ 풀이 : A famous Chinese poet of the 8th century A.D. - a sort of Korean Bacchus or god of wine.
赤松子	Chok Songja	○	×
項羽	Hangoo	○	×
箕子	Keej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제항 : 기궈 ▪ 풀이 : The Chinese Viscount Keui who became king and lawgiver of Korea about 1100 B.C.
太妊	Tai-im	○	×
太姒	Tai-sa	○	×
太姜	Tai-gang	○	×
盟姜	Maingkang	○	×
弄玉	Nangok	○	×
蘇中郎	≡Somoo	○	×
班婕妤	Pan Chopyo	○	×

「춘향」의 음역용례를 보면, 원전과는 다르게 음역한 모습들이 보인다. 『옥중화』의 “夏禹氏”, “文君”, “莊周”, “蘇中郎”를 게일이 “夏禹”, “卓文君”, “莊子”, “蘇武”로 음역한 부분이다. 물론 이는 게일이 음역한 바가 보다 관용적으로 쓰이는 인물에 대한 고유명이라고 추론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중국인명의 음역에 있어서 번역의 어려움으로 기인한 것으로 보는 편이 한결 더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고사 속의 인명은 성과 명, 성과 자(style), 성과 직함, 이름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관용적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으며, 사실 이를 정확하게 구분하며 이를 번역하기는 더욱 힘들기 때문이다. 게일의 번역은 이를 온전히 해결하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게일은 인명을 음역하고, 대문자, 소문자, 하이픈의 사용 등으로 이를 구분하고자 했지만 그 속에서 일관성은 쉽게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성과 자로 구성된 경우 “왕소군(Wang Sogun)”을 제외하고 “두목지(Toomokchee)”, “소자침(Sojachum)”, “항우(Hangoo)”등으로 성과 자를 구분하지 않아 마치 이름처럼 느껴진다. “양귀비(Yang Kwipee)”, “반첩여(Pan Chop-yo)”에서 귀비와 첩여는 직함이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이름인지 호칭인지 불분명하다.

한국의 인물명은 이러한 점에서는 한결 자유로운 편이지만, 이를 단순히 음역만할 경우 인물명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한자에 담긴 훈이 소멸되고 만다. 이는 단순히 개별어휘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 이름이 암시해주는 『옥중화』의 문학적 장치와도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다. 일례로, 월매가 태몽을 꾸고 춘향의 이름을 정하는 장면, 꿈을 꾸 후 이몽룡의 이름을 듣게 된 장면이다.

- ⑥ 꿈 가운데 었던 仙女(선녀), 李花桃花(리화도화) 두 가지를 兩(량) 손에 갈나취고 하늘노 느려와서 桃花(도화)를 너여주며 이 꽃을 잘 갖추어 李花接(리화접)을 붙쳤스면 오는 行樂(행락) 조호리르 李花(리화) 갖드 傳(전) 흘 곳이 時刻(시각)이 급(급)히기로 忽忽(총총)히 써나노르 꿈엔 後(후)에 孕胎(잉태) 하야 十朔(십삭)만에 쫄 한나를 나앗스니 桃花(도화)는 봄香氣(향기)라 일흠을 春香(춘향)이라 하앗더라 (1~2쪽)

In a dream, one night, there came to her a beautiful angel from

heaven, bearing in her hand a plum and peach-blossom flower. She gave the peach-blossom, saying, "Care gently for this, and later, if you graft it to a plum, gladness and joy will follow. I must hasten," said she, "to carry this plum-blossom to its destined place." So saying she withdrew. / When she had awakened from her dream, and time had passed, she bore a daughter, and as the peach-blossom is a bud of springtime, she called her Spring Fragrance of Choonyang. (1917, p.393)

- ㉓ 春香母(춘향모) 夢事(몽수)를 生覺(싱각)하니 道令(도령)님 일흔이 꿈 夢字(몽자) 룡 龍字(룡자)라 ㅁ음이 가득하야 過(과)히 嘲弄(조롱) 아 니하고 喜色(희식)으로 許諾(허락)하며 (32쪽)

The mother thought of the dream that she had had, and finding that his name was *Mongyong*, or Dream-Dragon, her mind was greatly moved so that she made no light remarks but with an earnest countenance gave consent (1917, p.445)

상기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에 대한 게일의 해결책은 음역과 개별 한자풀이를 병기하는 것이었다. 즉, 『옥중화』에서 등장하는 중심인물 춘향, 이몽룡, 월매를 살펴보면, 게일은 “春香”을 “Spring Fragrance or Choonyang”으로 처음 소개한 이후 “Choonyang”으로 표기한다. “夢龍” 또한 개별 한자의 훈을 풀어놓은 형태인 “Dream-Dragon”로 표기되다 춘향과 결혼서약을 하는 5장에서 “*Mongyong, or Dream-Dragon*”(1917, p.445)으로 번역되어 Dream-Dragon의 한국음이 Mongyong임을 알 수 있게 한 것이다. 月梅의 경우는 “Moon Plum”으로 의미역하다 24장에서 “Wolmai”로 음역하여 Moon Plum의 한국음이 Wolmai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문학적 효과와 관련되지 않은 향단이와 방자는 “Hyangtanee”와 “Pangja”처럼 음역했다. 반면 기생 점고 때의 기생 이름들은 “ORCHID BOAT(蘭舟), RISING MOON(月出), WILLOW GREEN(柳色)” 등으로 한자를 풀이하였다. 주목할 것은 각 이름의 한자음 한 자 한 자는 그대로 축자역하거나 조금 의역하지 만 기생을 소개하는 표현은 호장의 풀이 방식을 따라갔다는 것이다. 예를 들

면 게일은 행수기생인 “蘭舟”를 “蘭(ORCHID)+舟(BOAT)”로 “ORCHID BOAT”로 번역하지만, 蘭舟가 ‘목련(木蓮)으로 만든 아름다운 배’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호장의 표현처럼 蘭舟에 “계수나무 노와 비단 돛(the cinnamon mast and silken sail)”이 있다고 소개한다.

- ⑧ 南浦月(남포월) 김혼 밤에 棹(돛)되 치는 더 사공아 못노라 너 탄 비
桂棹錦帆(계도검범) 蘭舟(란주)—(69쪽)
“Far to the south, where the sailor boys bend at the oar, rides the
cinnamon mast and silken sail of the ORCHID BOAT.” (1918,
p.556)

“柳色, 初月, 飛燕” 등에 대한 전체 소개 표현은 “蘭舟”와 유사한 방식을 따르지만 柳色을 “WILLOW GREEN”, 初月을 “SILVER MOON”, 飛燕을 “Summer Swallow”로 약간 변형해서 번역하였다. 이는 혼으로 번역했을 때 그 의미가 그 명확하지 않거나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을 때 보다 문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러한 고유명사의 음역방식은 지명에 있어서도 공통된 모습을 보여준다. 게일은 일부 중국 지명(the Sosang River, the Pongnai Hills)의 경우는 각주 처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the Yakya River, the Keui Mountains 등)도 많았다.²⁴⁾ 지명의 경우 “소상강(Sosang River)”처럼 ‘음역+의미역’하는 경우가 전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황학루(the Yellow Crane Pavilion)”처럼 전체를 의미역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일관적인 원칙을 쉽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봉래산(蓬萊山)”에서처럼 蓬과 萊의 의미역이 전체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음역하고, “황학루(黃鶴樓)”처럼 의미역으로 그 의미가 드러나는 경우는 의미역 했던

24) 각주 처리된 중국 지명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음역+의미역: Sosang River(소상강), the Pongnai Hills(봉래산)
- 의미역: The Yellow Crane Pavilion(황학루)

각주 없는 중국지명:

- 음역+의미역: the Yakya River, the Keui Mountain, the Yong River, the Koso Outlook
- 의미역: the Phoenix Tower, the Chokpyok river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영어권 독자들은 각 단어가 대문자 표기된 중국 인명과 지명을 통해 해당 표현에 해당하는 고유명사가 한국에 있고, River, Mountain, Pavilion을 통해 이들 고유명사가 강, 산, 정자 등임을 알 수 있도록 게일은 번역한 셈이다.

게일은 한국의 지명과 명소 등을 번역할 때도 이러한 중국 지명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의미역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음역하고 산과 강 등은 의미역하는 경우 (the Chiri Mountains[지리산], the Han River[한강] 등), 각 단어의 의미역으로 전체 의미가 드러나는 경우는 의미역으로만 이루어진 경우(the Jewel Curtain Outlook[주렴각], the Fairies's Pavilion[신선각] 등)가 많았다.²⁵⁾ 흥미로운 것은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 배경인 광한루에 대한 게일의 번역이다. 알렌은 “Chun Yang-The Faithful Dancing-Girl wife”(1889)에서 광한루를 “Kang Hal Loo”로 음역하고 “the temple” 등으로 치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러트는 “The Song of a Faithful Wife, Chu'un-hyang”(1974)에서 “Kwanghal-lu”로 번역하였다. 이와 달리 게일은 중국과 한국 명소를 번역하는 전반적인 경향과 달리 광한루(廣寒樓)를 음역도 의미역도 하지 않았다. 그는 광한루가 달의 선녀인 항아가 살던 월궁 속에 있는 건물이라는 것과 광한루(廣寒樓)보다는 월광전(月光殿)이 이몽룡과 춘향의 첫 만남과 로맨스를 더 잘 묘사한다는 생각하여 광한루를 “the Moonlight Pavilion”으로 옮긴 듯하다.

2. 언어유희의 음역

『옥중화』를 구성하는 어휘들(소설어)에 대한 음역은 『구운몽』보다 더 복잡한 맥락이 존재한다. 게일이 『옥중화』에서 음역과 관련하여 대면했던 가장

25) 한국 지명과 명소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음역+의미역: Chiri mountains(지리산), Surak mountain(수락산), the Tobong peak(도봉산), the Blue Dragon Ridge of Wangsimnee(왕십리청룡), the White Tiger of Mallijai(만리재백호), the Han River(한강) 등
- 의미역: the department of Three Rivers(삼청동), The Red City River(적성강), The North Gate(북문), the Temple of the God of War(관왕묘), the South Gate(남문), the Moonlight Pavilion(광한루), the Crow and Magpie, Bridge(오작교), the Fairy Temple of Yongkak(영주선각), the Magpie Bridge(오작교), the Jewel Curtain Outlook(주렴각), the Fairies' Pavilion(신선각).

곤혹스러운 언어표현은 잠시 살펴보았던 고유명사 번역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옥중화』 속 한국어의 음성상징을 통한 언어유희를 번역하는 문제는 한결 더 복잡했기 때문이다. 『옥중화』는 이런 언어유희 장면이 많은데 계일은 원전의 언어유희를 번역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였다. 첫째, 한국어를 직접 음역하며, 그 뜻을 병기하는 방법이다.

- ㉑ (母(모)) 너 平生(평싱) 想思(상사)하는 李書房(리서방)인지 석해書房(서방)인지왔다 (148쪽)

“Your beloved, your long thought of Yee Sobang, Worm Sobang, has come.”(1918, p.220)

- ㉒ (母(모)) 데라 別(별)수 잇는 줄로 御使(어스)될까 監司(감스)될까 생긴 풀이 客死(각스)하겠다 (142쪽)

“What way out, pray?” demanded the mother. “Become an *Osa* (Commissioner), or a *Kamsa* (Governor) and you might; but there is no *Osa* or *Kamsa* for the like of you, nothing but a *kaiksa* (a dead beggar), I imagine.”

계일은 『옥중화』의 세밀한 언어표현을 모두 번역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한국어를 음역하여 언어유희를 살린 것이다. ㉑를 보면, 계일은 이서방과 석해서방의 언어유희를 “Yee Sobang, Worm Sobang”으로 번역한다. 영문을 ‘이서방, 충(蟲)서방’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㉒을 보면, 계일은 월매의 언어유희인 “어사, 감사, 객사”를 “*Osa*(Commissioner)”, “*Kamsa*(Governor)”, “*kaiksa* (a dead beggar)”로 음과 뜻풀이를 함께 제시하여 원전의 언어유희 느낌을 재현하면서 동시에 영어권 독자에게 그 의미도 전달하고자 하였다. 계일은 원전의 음을 통한 언어유희를 재현하기 위해 한국어 음을 그대로 차용하기도 하지만 영어의 두음이나 영어의 품사 변화와 접미사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다음은 광한루에서 이도령과 방자가 춘향 그네 뛰는 모습을 보면서 방자가 이도령을 놀려먹는 장면이다.

- ㉑ “(道(도)) 너 붓치 바로 보아라 / (房(방))부처 말고 彌勒(미륵)님 바로 보아도 안이 보여요” (7쪽)
 “See, where my fan is pointing, look now,” said the Young Master. “Fan or fairy wand, I see nothing.” (1917, p.397)

여기서 원전의 부채와 부처, 미륵의 말장난을 게일은 “f”로 두운을 맞춘 “fan”과 “fairy”로 언어유희를 재현하고자 한다. 이를 재번역하면 fairy가 신선, 요정의 의미이지만 영문의 언어유희를 재현하고자 하면 “부채도 부처 지팡이도 안보여요”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다음은 사또가 춘향의 정절을 여러 의미의 ‘절’ 자로 다음과 같이 조롱하는 장면이다.

- ㉒ 이런時節(시절) 보소 姣生守節(기생수절) 혼단말을뉘가아나 腰絶(요절) 흥가 分付拒絶(분부거절)키는 閻夫事情(간부사정)懇切(간절)하야 別層絶(별층절)을 다 말하니 네 罪(죄)가 切切可痛(절절가통) 刑杖(형장)아리 氣絶(기절)하면 네 青春(청춘)이 屬節(속절) 업지 (88쪽)
 What times we’ve landed on! When *keesangs* talk of virtue, my virtuous sides will split with virtuous laughter. Your virtuous desires to see your paramour make you virtuously break my orders do they? Your virtue lands you under the paddle where you may virtuously taste of death for it. (1918, p.28)

게일은 원전의 “시절(時節), 수절(守節), 요절(腰絶), 거절(拒絶), 간절(懇切), 별층절(別層絶), 切切(절절), 氣絶(기절), 屬節(속절)”로 열거되는 원전의 언어유희를 “virtue, virtuous, virtuously” 등을 이용하여 번역했다. 원문의 ‘절’은 한국어 음은 같지만 “節, 絶, 切”로 그 의미가 다른데, 게일은 명사 “virtue”의 파생어인 “virtuous, virtuously”로 품사를 달리하여 말장난의 느낌을 살렸다. 영역본은 “기생이 덕(virtue)을 말하니 내 덕스러운(virtuous) 옆구리가 덕스러운(virtuous) 웃음으로 쪼개지겠다. 네 애인을 보고자 하는 너의 덕스러운(virtuous) 욕망으로 너는 나의 명령을 덕스럽게(virtuously) 거절하느냐? 너의 덕(virtue)으로 너는 곤장을 맞을 것이고 너는 이로 인해 죽음을 덕스럽게(virtuously) 맞볼 것이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다음은

형용사 접미사를 이용한 언어유희 번역이다.

㉓ 乾(건)은 元(원)코 亨(형)코 利(리)코 貞(정)코 春香(춘향)코 내 코 한
디 디고 그리고 더리고 흥면 식 코 나면 ㄷ코 ㄷ코 어불스 ㄱ코가 드러
왔고 / (房子(방자)) 께해 섰다 / (房(방)) 道令(도령)님 엇진 코가 그
리 만소 내 코 조금 너으시오 (18쪽)

“The great Kon is primal, forceful, profitable, loveable, tractable,
beautiful, good-luckable but Choonyang is unmatchable.” The
Boy standing by in astonishment, said, “Where does the Young
Master get all his ‘ables’ from?”(1917, pp.402~3)

이몽룡은 주역의 원형이정(元亨利貞)을 풀이하면서 붙인 연결어미인 ‘고’
를 영어의 형용사화 접사인 “-able”로 끝나는 단어를 대거 나열하여 사설의
언어유희를 살리고자 하였다.

IV. 『옥중화』 소설어에 대한 문화번역의 문제들

1. 조선의 신분 및 관직 관련 소설어휘의 번역

서양인의 민족지에서 『옥중화』와 겹쳐 고찰할 수 있는 조선의 사회문화를
다루는 부분은 주로 1895년 이전의 조선을 기술하는 내용 속에 담겨 있다.
먼저 과거 조선의 신분체계는 대체적으로 양반(귀족/궁정귀족, 지방양반), 중
인, 양인, 노비로 구분되어 소개된다.²⁶⁾ 그렇지만 『옥중화』에는 이렇듯 정적
이며 포괄적인 구분만으로 한정할 수 없는 생동적이며 입체적인 모습들이
존재한다. 그것은 신분이 다른 등장인물 간의 관계 속에 부여된 다양한 호칭
들이 병존하는 모습이다. 즉, 신분적 질서가 있어 이름이 직접적으로 호명되
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양반 사대부에 부응하는 인물들에게는 관직이
반영되어 있다. 이에 부응하는 다양한 양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은 역시
이몽룡이다. 『옥중화』에서 이몽룡보다 신분이 낮은 춘향을 비롯한 인물들과

26) 샤를르 달레, 앞의 책, 163~181쪽 ; 러시아대장성, 앞의 책, 280~295쪽.

의 대화와 서술방식에서 몽룡의 이름이 직접 불리지는 않다. 따라서 “이도령” 혹은 “도령님”이란 호칭이 자주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게일 한영이중어사전의 등재양상은 다음과 같다.

도련님(道令) The son of a gentleman-so called by slaves or coolies
(Gale 1911)

게일은 이도령을 “the young master,” “the Young Master”로 옮기다, 그가 춘향집을 찾아가는 4장에서는 “the son of the Governor, Master Toryong”로 그 이후로는 “the Young Master”로 주로 번역한다. 게일은 “the Young Master”를 대문자 표기함으로써 독자들은 이에 대응하는 특정 한국어가 있고 이것이 “Toryong”임을 알게 된다. 다른 번역자의 번역용례를 보면, 알렌은 “Ye Toh Ryung, or Toh Ryung, the son”으로 표현한다. 러트는 도령은 “양반가의 미혼 자제를 일컫는 호칭으로 현대 영어로 번역 불가능하다”²⁷⁾라고 말하며 “young master Yi” 또는 “the young master” 등으로 옮긴 바 있다. 이몽룡은 서사전개에 있어 과거급제 이후 암행어사가 된다. “어사”는 게일의 이중어사전에 다음과 같이 등재되어 있다.

어사(御史[御使의 오기 : 인용자]) A royal inspector who travels
incognito to examine into the acts of officials. (Gale 1911)

『옥중화』에서 어사의 역할과 직무를 잘 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서구인의 민족지를 펼쳐보면 어사는 임금이 보내는 감사관으로, 수시로 항상 비밀스럽게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수령과 신민의 행동을 감시하고 눈으로 직접 실정을 살피는 특사이자 절대적 권한을 지닌 관직이다. 생살권을 가지고 있으며 관찰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관리를 파면하고 벌할 수 있으며, 이들의 보고에 근거하여 정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기술된다.²⁸⁾ 이러한 사전의 용어풀이 혹은 민족지의 설명적 풀이는 어사에 대해 잘 말해주는 셈이다. 하지만

27) R. Rutt, op.cit., p.243.

28) 샤를르 달레, 앞의 책, 74쪽.

문학작품에서 주석으로 첨가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의 설명적 진술로 이 용어가 제시될 수는 없다. 따라서 어사를 일대일 대응관계로 번역할 적절한 어휘의 선정은 그만큼 중요한 관건이 된다. 「춘향」에서 어사는 ‘inspector’로 번역되지 않는다. 과거 알렌의 경우 “Ussa-government inspector”로 처음 소개한 후 음역인 “Ussa”로 나타내었다. 반면 게일은 “commissioner”으로 번역한다. 이는 원전 『옥중화』에서 어휘가 드러나는 문맥을 게일이 온전히 보존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즉, 15장에서 왕이 장원급제자 이몽룡을 전라도 암행어사로 임명하는 장면에서 “팔도 밀사(my secret commissioner to the eight provinces)”, “특사(my special commissioner)”, “어사라는 큰 영예(the high honours of Commissioner)”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몽룡이 본격적으로 직무를 시작하는 16장부터는 그를 직함인 “the Commissioner”로 대문자 번역하여 이에 해당하는 한국어가 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춘향모와 이몽룡이 만나는 20장에서 “Commissioner”의 한국어음 어사(Osa)를 함께 병기한다. 즉, 이러한 어휘선정은 게일의 개성적이며 의도적인 번역전략인 것이다. 알렌, 게일을 통해 볼 수 있는 어사에 대한 번역용례인 ‘inspector’와 ‘Commissioner’는 영한사전 속에서 다음과 같이 등재되어 있다.

	Underwood 1890	Scott 1891	Jones 1914	Underwood 1925
inspector	×	감리관	검사관(檢査官), 시찰위원(視察委員)	左同
commissioner	×	공스	스무관(事務官) : 스무원(事務員)	스무관(事務官), 스무원(事務員), 대리인(代理人)

1910년대 이후 한국의 행정기구를 지칭하는 명칭이 크게 전환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지만 양자 모두 “御使”와 대응관계를 지닌 영어어휘는 아니었다. 영한사전 속에서 어사와 대응관계가 있는 영어어휘는 오히려 “censor (Scott 1891, Underwood 1925)”이다.

	Underwood 1890	Scott 1891	Jones 1914	Underwood 1925
censor	대간, 대스간	어사	향로 (香爐)	(1) 대간(大諫), 대 사간(大司諫), 어사(御使), 안찰사(按察使), 검열관(檢閱官) (2) 학감(學監), 사감(舍監), 급장(級長)

『옥중화』에서 처음 이몽룡이 왕에게 “御使”란 관직을 받는 모습에서 ‘지방의 관리를 시찰’하는 의미맥락보다는 ‘왕에게 특명을 부여받은 고위관리’란 사실에 초점을 맞춰 번역한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비록 시찰 및 검사와 같은 의미맥락이 약해질지 모르지만, 이는 『옥중화』의 내용 전개 속에 쉽게 해결된다. 왜냐하면 독자들은 어사(Commissioner)는 왕의 특명을 받고 지방으로 간 특사로 신분을 감추고 민생과 관리들을 살피고 왕을 대신해 부패한 관리를 처단할 수 있는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옥중화』 속에서 다양한 호칭으로 제시되는 또 다른 인물로 ‘房子’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알렌은 방자를 “pan san(valet)”, “the servant”, “the man”, “the attendant”로 번역한 바 있다. 방자를 번역함에 있어 어려운 점은 또 다른 <춘향전>의 영역자인 러트의 지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러트는 한국어 ‘방자’에 해당하는 정확한 번역은 아니지만 다른 하인들과 구별하기 위해 방자를 “valet”로 번역한다고 서문에서 밝힌 바 있다.²⁹⁾ 즉, <춘향전>에 등장하는 다양한 관속들과 방자를 구별하는 어려움이 있는 셈이다. 게일은 방자를 “a yamen attendant, the Boy”으로 처음 소개한다. 독자들을 “the Boy”가 관아의 사환을 나타내며 게일의 보통명사의 대문자 사용으로 이에 해당하는 특정 한국어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도록 제시한 셈이다. 4장에서 이도령과 방자가 처음 춘향집을 방문했을 때 춘향모는 그를 “Pangja”라고 부른다. 15장에서 춘향은 이전 이몽룡의 방자에게 편지를 주어 서울에 가게 한다. 게일은 그를 “the Young Master’s former Boy, whose name was Bolljacksay, Halfwit”(1918, p.123)라고 소상하게 풀어서 설명해준다. 이를 통해 독자는 관아에서 일하는 “The Boy”의 한국어음이 “Pangja”이고 방

29) R. Rutt, op.cit., p.243.

자는 관아의 사환을 나타내는 직업명이며, 방자의 실제 이름은 “반푼이(Halfwit)”라는 의미의 한국음 볼잭쇠(Bolljacksay)임을 알 수 있다. 계일은 『옥중화』에서 방자를 지칭하는 다양한 호명들을 모두 제시해주는 셈이다.

춘향은 때로는 기녀 혹은 기생으로 『옥중화』 속에서 제시되며, 또한 많은 기녀들이 『옥중화』에서 등장한다. 계일은 “the Young Master(Toryong), the Boy(Pangja)”와 마찬가지로 기생을 “dancing-girl”로 번역하다 나중에 이텔릭체 *keesang*으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한다. 행수기생을 의미할 때는 “the head dancing-girl(*keesang*)”로 병렬 표기함으로써 “dancing-girl”의 한국음이 “keesang”임을 알 수 있다. 계일은 이것으로는 그 표현이 부족했다고 느꼈는지 “keesang”을 각주 처리해서 기생의 계급을 설명한다.³⁰⁾ 방자는 춘향에게 이도령이 부르면 기생 어미를 둔 춘향이 마땅히 그 명을 따라야 하며 “You may be of the gentry, but it is a lame kind you are(양반일지는 모르나 절름발이 양반이지)”(1917, p.397)라고 말한다. 번사또는 수절하고자 하는 춘향을 보고 기생의 정절을 운운하며 조롱한다. 계일의 각주와 이들의 말과 작품 전체를 통해 영어권 독자들은 춘향이 현재 기생은 아니지만 기생이었던 어머니를 둔 딸로 신분 위계가 엄격한 당시 사회에서 그 사회적 지위가 모호하고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번역을 통해, 춘향이 처하게 되는 곤경과 고난이 왜 발생하는 지를 제시해주는 셈이다.

『옥중화』 속에는 관아를 배경으로 전제되는 장면들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관아를 소속으로 하는 다양한 관직명들이 제시된다. 이는 1894년 이전 옛 조선의 지방행정제도와 긴밀히 관련된다. 그렇지만 샤를르 달레(Charles

30) 계일의 기생 주석: keesang. These were the dancing-girls attached, one of the recognized classes of women slaves attached to public offices in old Korea. They were frequently well educated, gifted in music and singing, and were entirely at the service of their master. (1917, p.555) ; 이러한 해설은 서구인의 기생 및 기생제도에 대한 설명과 공통적인 진술이기도 하다. 즉, 일본 게이샤와의 유사성, 연예활동과 매춘을 겸하는 점, 가난한 집안에서 외모가 뛰어나면 어려서 기생으로 팔려 나라에서 음악과 무용 그리고 손님을 접대하는 교육을 받는 점이다(이에 대해서는 문순희, 「19세기 말 20세기 초 서구인이 본 기생:서구인의 견문록에 나타난 기생관련 기록을 통하여」, 『열상고전연구』 29, 열상고전연구회, 2009, 417~419쪽을 참조).

Dallet) 신부의 『한국천주교회사』의 서설(1874) 등을 비롯한 서구인의 민족지의 내용만으로는 『옥중화』의 다양한 관속명을 포괄할 수 없다. 종2품에서 육품에 해당되는 “觀察使, 監司[道長官], 府尹, 庶尹, 大都護府使, 牧使, 府使, 郡守, 縣令, 察訪, 縣監”과 강화, 수안, 광주, 송도와 같은 전략적인 요충지를 담당하는 留守, 이들을 보좌하는 “判官”(經歷), 각 고을 수령의 보좌관인 座首와 別監 혹은 衙前과 포졸, 각 도의 역장인 察訪 등이 제시되기 때문이다.³¹⁾ 이러한 민족지와 겹쳐지는 관직은 『옥중화』 속 “감사, 부사, 군수”이다. 이에 대응되는 번역용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알렌은 남원부사에 제수된 이몽룡의 아버지를 “the Prefect”, “the Governor” 등으로 표현한다. 이와 유사하게 계일은 그를 “District Magistrate of Namwon County”, “the Governor”, “the governor”, “the Prefect” 등으로, 변사또를 “the governor of Namwon”으로 번역한다. 이 이외에 담양부사는 “the Governor of Tamyang District”로, 기타 지역은 “the various District Governors”으로, 전라도 감사가 있는 곳은 “the Provincial Governor’s town of Chunjoo”로 나타낸다. 영어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county는 district를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계일은 이 작품에서 이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남원을 나타낼 때 “Namwon District”, “Namwon County”로 표현한다. Namwon 뒤에 district와 county를 더함으로써 Namwon이 지역명임을 나타낸 셈이다. 계일은 district, county, province를 다스리는 최고책임자를 나타낼 때 모두 “governor”을 사용한다. 부, 군, 읍(district, county)의 최고 책임자는 “District Governor”로, 도(province)의 최고 수장은 “Provincial Governor”로 표현한다. 전술했듯이 춘향모가 이몽룡을 욕하는 장면(110)에서 “Become an *Osa*(Commissioner), or a *Kamsa*(Governor)”에 이르러 영어권 독자들은 Governor의 한국어이 ‘감사’임을 알게 된다. 20장에 이르기 전에 작품을 제대로 따라온 독자는 이

31) 『한불자전』(1880)에 부록으로 들어있는 「지리부 서문」에는 당시 군과 민간행정의 다양한 분과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관직명이 제시되어 있다.(황호덕, 이상현 편역, 『개념과 역사, 근대 한국의 이중어사전』2, 박문사, 2012, 37~38면) ; 샤를르 달레, 앞의 책, 69~101쪽 ; 러시아대장성, 앞의 책, 597~601쪽 ; 호머 헐버트, 앞의 책, 70~82쪽.

미 governor에는 위계 구조가 있고 Provincial Governor가 District Governor보다 더 높은 관직임을 파악하게 된다. 그리고 *Kamsa*(Governor)로 표현했을 때, 이 때의 감사는 맥락상 가장 높은 품계의 지방관인 ‘Provincial Governor’을 의미함을 유추할 수 있다.

더불어 『옥중화』에서 관아에 소속된 관속들의 이름이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나온다.³²⁾

『옥중화』	한영사전 (1911, Gale)	「춘향」의 번역용례	영한사전 (Underwood, Scott, Jones)
서리	the writers or clerks-in government offices in the Capital	The secretary, the head secretar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제항 : secretary ▪ 풀이 : 서기, 대서군, 서기관/비장, 막하, 0방/書記, 서기관(書記官)
이방	吏房 the chief class of writers or yamen clerks	the chief secretary; the first secretary of ceremonies; the head secretary	
통인	the servant of an official	special secretary	
수형리	the chief writer or clerk of an office of justice	director of tor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제항 : director ▪ 풀이 : 사의원; (of a government bureau)국장(局長)
집사	a director of affairs-in a yamen.	The stew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제항 : steward ▪ 풀이 : 세관청지기, 음식보살피는이/청지기/청지기(僮人, 집사(執事))
호방; 행수집사	yamen clerks-who collect taxes etc; X	The head steward	
역졸 중방 통인	Low servants in service at a 역; X; the servant of an official	attenda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제항 : attendant(X)

32) 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옥중화』의 어휘는 첫째 칸에 있다(『옥중화』에는 한자와 한글이 병기되어 있지만 지면상 한글만 표기한다). 이 단어들에 해당하는 영역본 표현은 세 번째 칸 「춘향」의 번역 용례에 있다. 때로 한 한글 어휘가 영역본에서 몇 가지 다른 영어 표현으로, 또는 여러 한글 어휘가 하나의 영어 단어로 표현되기도 하고, 다른 한글 어휘들이 같은 영어 단어에, 같은 한글 어휘가 다른 영어 단어에 대응하기도 한다. 두 번째 칸은 원전의 한글 단어(들)의 풀이를 계열의 한영사전(1911)에서 찾은 것이고, 네 번째 칸인 영한사전은 영역본의 영어 단어를 「춘향」(1917)이 번역되기 이전의 초기 영한사전인 Underwood(1890), Scott(1891), Jones(1914) 순으로 그 풀이를 적은 것이다.

방자	official servants	a <i>yamen</i> attendant, the Boy	
도사령	the chief of the <i>yamen</i> runners	the number one attendant	
육방관속	the writers or clerks of the district offices of the Six Boards	the attendants of the Six Bureaus	
사령 나졸 통인 순령수	official servants, <i>yamen</i> underlings; X; the servant of an official; X	runners	▪ 표제항 : runner(X)
마두병방	X	a head-runner	
수배	the clerks or writers who accompany an official to his district in the country	the chief runner	
도사령	the chief of the <i>yamen</i> runners	the chief runner	
나졸	X	the head runners	
나졸 사령 역졸	X; official servants, <i>yamen</i> underlings; Low servants in service at a 역	soldiers	▪ 표제항 : soldier (군사, 군병/군사, 병사/군인, 무반, 병대(兵隊), 병정, 병졸, 군사)
마병	cavalry troops	mounted soldiers	
도사령	the chief of the <i>yamen</i> runners	the head soldiers	
통인	the servant of an official	the messengers	▪ 표제항 : messenger ▪ (절인, 사환, 사자/보0군, 심부름꾼, 환/사자)
책방방자	X; 책방(a scholar who accompanies a magistrate to his district) 방자(official servants)	the messenger for Dream-Dragon	
도군노	X	chief beaters	▪ 표제항 : beater(X)
도사령	the chief of the <i>yamen</i> runners	the head-beater	
사령 군노	official servants; X	two of the <i>yamen</i> floggers	▪ 표제항 : flogger(X)
문간사령	X; 문간(the space just within the gate)	the gate-keeper of the prison	▪ 표제항 : gate-keeper (X)
사령	official servants	the gate-keeper	
감옥형리	X; 감옥(a jail or prison); 형리(a writer or clerk of the Board of Justice)	the warden	▪ 표제항 : warden(X)
사정 옥사정	X	the jailer	▪ 표제항 : jailer(X)

가마꾼	X; 가마(a kind of sedan chair)	the chair-bear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제항 : bearer ▪ 교군, 교군군, 보교군, 구중/짐군, 지계군, 교군/--)
공고자	X	the head bearer	
순령수	X	the flag-bears	
일산 구중	X; 일산(a sunshade or parasol carried before an official); 구중(a mandarin's attendants)	umbrella bearers	
군회	X	paddle-bearers	
도군회	X	the head-cons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제항 : constable ▪ 포교, 출사, 순포/포교, 사령/--)
도급창	X	the head-cri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제항 : crier 전어군/길나장이/--
구중	a mandarin's attendants	his serva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제항 : servant ▪ 하인, 사환/하인, 모군, 머슴, 샅군, 더부살이/하인, 사환, 더부살이, (boy)상노, (farm hand)머슴(雇工), (steward to a nobleman) 청지기(僮), 겸인(僮人), (Palace) 정감(廷監), (in government buildings) 청사(廳使), 사령(使令)
역리역졸	X; 역리(writers or clerks in service in a 역); 역졸(low servants in service at a 역)	servants and attendants	
역졸	low servants in service at a 역	post-servants	
관청색	official secretaries or runners	his house-servants	
도방자	X	body servants	
관노	a yamen male slave	slav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제항 : slave ▪ 중, 노비/중/중(노복(奴僕) 비복(婢僕), 노예(奴隸), 노자(奴子), 비자(婢子), 여중 (man condemned to slavery for crime)관예(官隸), (woman thus condemned) 관비(官婢), 관노(官奴)
도군노	X	the head slaves	

육방의 우두머리인 이방, 호방, 수형리, 그 아래에 방자, 사령, 나졸, 통인,

군노, 사령, 문간사령, 감옥형리, 옥사정, 가마꾼, 도군노, 급창 등의 이름이 나온다. 이들에 대한 게일의 번역은 중복될 때도 있지만 “the chief secretary, the head steward, Director of Torture, attendant, runner, soldier, messenger, beater, flogger, gate-keeper, jailor, bearer, head-constable, crier” 등으로 주로 번역되었다. 또한 이들보다 포괄적인 단어인 “servant”와 “slave” 등으로 관속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게일의 관속명 번역은 주로 해당 관속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아니면 해당 장면을 담당하는 관속의 행위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조선 시대에, 지방 관아에 속한 형리의 우두머리”라는 의미의 수형리(首刑吏)를 게일은 “The Director of Torture”로 번역하였다. 춘향이 매 맞는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게일의 이 영어표현으로 그들의 직무가 고문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전달한다. 또한 게일은 죄인을 잡으러 가거나 죄인을 매질하는 직무를 담당한 군노, 사령을 “beater”와 “flogger”로 표현하였다. 조선 시대의 지방 관청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은 사령, 군노 등이 이런 일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영어 독자들은 “beater”, “flogger”을 보고 그들의 직무를 곤장이나 태형과 연상시킬 것이다.

2. 조선의 문물 관련 소설어휘의 번역

『옥중화』에는 조선의 물산명들 예컨대, 등장인물의 복장(의복, 장신구)과 각 인물들이 거하는 공간에 배치된 물품명들을 지칭하는 어휘들이 많이 등장한다. 결론부터 먼저 말한다면 이러한 어휘군은 서구인의 민족지학 나아가 1910년대 출판된 이중어사전을 매개로 번역이 불가능한 어휘군이다. 따라서 게일이 새롭게 번역해야 될 한국어 어휘인 셈이다. 일례로 광한루에 가는 이몽룡을 위해 방자가 준비한 의복과 장신구를 착용하는 장면만을 놓고 보아도 목록치 않았을 번역의 어려움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 4 ……紅纓白紫鞞珊瑚鞭(홍영자공손호편) 玉鞍金韁黃金勒(옥안금천황금
 락), 靑紅絲(청홍스) 고흔 굴네 象毛(상모) 물녀 덤뻑 달아 앞뒤 걸쳐
 잡아미고 層層(층층) 다래 銀葉鎧子(은엽등즈) 虎皮(호피)도듬뺨시난

대(a)……(4쪽)

He[The Boy(방자):인용자] had put in order the red tassels and purple reins, the embroidered blanket, the gilded bridle, the blue and red plaited halter, and the other head ornaments. (1917, p.395)

물론 원전과의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즉, 『옥중화』에서는 이몽룡은 방자가 가져온 의복과 장신구를 착용하지만, 「춘향」에서는 단지 방자가 가져오는 것으로만 번역되어 있으며 이에 맞춰 원전의 밑줄 친 부분(a)을 “다른 머리 장신구들(the other head ornaments)” 정도로 축약했다. 그렇지만 이를 제외한 『옥중화』의 다양한 물명들을 “붉은 술(the red tassels : 紅纓)”, “자주색 재갈(purple reins : 紫鞵)”, “자수 덮개(the embroidered blank : 玉鞍)”, “도금 굴레(the gilded bridle : 黃金勒)”, “청홍사 줄 고삐(the blue and red plaited halter : 靑紅絲)”로 번역했다.³³⁾ 이렇듯 이몽룡이 입은 의복 및 장신구들은 당시 서구인의 민족지학적인 저술만으로는 온전히 묘사할 수 없다.³⁴⁾ 또한 『옥중화』 속 이 어휘들은 게일의 『韓英字典』(1911)을 펼쳐 보아도, “靑紅絲 : Red thread or string”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등재되지 않은 어휘이다. 즉, 게일은 개별 한자의 훈을 착안하여 이를 풀어서 번역한 셈이다.

등장인물의 의복을 나열하는 『옥중화』의 언어들에 게일은 ㅁ의 경우와 같이 번역했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을 뽑자면 『옥중화』에서 변사또가 신연 행차할 때 관속들의 의복묘사일 것이다(64쪽~66쪽). 게일 영역본에서 신연 행차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옥중화』에서 제시된 의복 어휘 전반을 번역하게 된다. 게일이 번역한 『옥중화』의 어휘를 중심으로, 그가 참조했을 『韓英字典』(1911)가 관련하여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33) 인용문에는 없지만 “靑珊瑚鞭” 역시 번역이 생략되지는 않았다. 다만 게일은 산호편이 이몽룡의 것이 아니라 방자의 것이기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방자가 “산호 채찍”(the coral whip)을 들고 있는 것으로 번역했을 뿐이다.

34) 이하 한국인의 주택과 의복, 장신구에 관한 기술은 샤를르 달레, 앞의 책, 247~259쪽, 러시아대장성, 앞의 책, 325~332쪽을 참조.

『옥중화』		한영사전(Gale 1911)	「춘향」의 번역용례
관리	복장		
吏房 리방	高陽 나 이 ³⁵⁾ 저고리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고리 The small inside coat or jacket ▪ 바지 Pantaloons, breeches, trousers... 	silken coat and trousers
	班紬동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옷 A narrow sleeved coat divided at the sides 	
	毛施直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시 grass-cloth, white linen 	grass cloth flying duster
	南方壽紬 누비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비 quilting-of clothes ▪ 바지 trousers 	quilted trousers
通引 통인	三八동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甲紗 A Kind of thin figured silk ▪ 快子 A coat having no sleeves and open at the sides, worn by yamen underling. 	outer coat of Chinese silk
	甲紗쾌자		
	拔香漢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香 perfume, incense, scent 	perfumed pockets
	鶴膝眼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鶴膝 The ear clasps of a pair of spectacles ; Spectacles. ▪ 眼鏡 Spectacles... 	crane-jointed spectacles
	氈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笠 갓 a hat 	felt hat
及唱 급창	외울網巾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網巾 The horsehair head-band 	headband ornaments
	玳瑁貫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玳瑁 Tortoise-shell ▪ 貫子 Head-band buttons 	tortoise-shell buttons
	偃月上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토 A topknot 	twisted topknot
	珊瑚동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珊瑚 Coral ; coral bead ; red coral. 	coral pin
	琥珀風簪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琥珀 Red amber ▪ 風簪 A Kind of clasp worn on the front of the head-band-to steady the hat in the wind. 	amber wind-catcher
	白壽紬 누비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비 quilting -of clothes ▪ 바지 trousers 	white corded silk trousers
	韓山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山 a prefect in chu'ung-chong-do ▪ 모시 grass-cloth, white linen 	Hansan outer overall
	黑紵絲手巾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手巾 a handkerchief 	grass-cloth fastenings
	古緞背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背心 a sleeveless jacket 	a Chinese silken vest
	銀粧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粧刀 an ornamental knife hung at the coat-strings 	a silver mounted knife
	天靑毛綯 허리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리띠 a waist belt, a girdle 	a belt of sky blue
	紅廣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袂帶 a belt, a girdle 	a wide red belt
	桃榴佛手 錦囊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쥬머니 囊 a pocket 	figured silk pockets
	大邱八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八絲 a cord made of eight threads 	pocket strings
夾囊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쌈지 a pocket-as for tobaccos 	tobacco pouch	
짚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짚신 straw sandals 	grass shoes	

軍奴 군노	山獸 털 병거지	▪ 병거지 a felt hat worn by soldiers and official servants	a wild beast felt hat
	宮綃軍服	▪ 軍服 a military uniform	a suit of Chinese silk
	吐手	▪ 吐手 wristlets	short wristlets
使令 사령	伍色手巾	▪ 伍色 the five colors ▪ 手巾 a handkerchief	a handkerchief of many colours
	藍肩帶	▪ 帶 잇기 the shoulders	a blue fancy girdle
	佩纓汗衫	x	yellow beads for hat-string
	창옷	a small-sleeved coat divided at the sides	wide sleeves, long divided outer coat

이러한 의복, 장신구와 함께 춘향이 거하는 방안의 묘사와 같은 장면을 보아도 이에 대한 번역이 기록치 않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㉓…세간을 훑혀보니 紋彩(문치) 도흔 玳瑁冊床(디모척상) 樺柳文匣(화류문갑) 翡翠硯床(비취연상) 珊瑚筆筒(산호필통) 滿湖硯滴(만호연적) 龍池硯(용지연) 鳳凰筆(봉황필) 詩書(시서)(㉔)를 싸앗는디…(28쪽)
There were besides in the room, an ornamental book-case, a willow letter folder, a green ink-stand, a coral pen-case, a stone water-bottle, a phoenix-pen and rolls of letter-paper. (1917, p.443)

㉓에서 춘향의 방세간 물품들(㉔) 중에서 “龍池硯”는 번역을 생략했지만, 나머지 물품들은 “紋彩도흔 玳瑁冊床”는 “an ornamental book-case”, “樺柳文匣”는 “a willow letter folder”, “翡翠硯床”는 “a green ink-stand”, “珊瑚筆筒”는 “a coral pen-case”, “滿湖硯滴”는 “a stone water-bottle”, “鳳凰筆”은 “a phoenix-pen”, “詩書”는 “rolls of letter-paper”와 같이 번역했다. 게일의 『韓英字典』(1911)을 보면, 책상, 문갑, 연상(硯床), 필통, 연적과 같은 물명은 등재되어 있으며, 이는 조선의 가정에서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이었을 것이다.³⁵⁾ 이러한 물품을 기본으로 “紋彩(문치) 도흔 玳瑁冊床(디모

35) 『옥중화』 복장 칸에서 ‘高陽(고양) 처럼 한자(한자음)을 병기하지만 지면상 한자만 표기한다. 한영사전(Gale 1911) 칸에서는 ‘吐手’처럼 전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班紉(반주)동옷’처럼 반주는 없고 동옷만 있을 경우 동옷의 풀이를 적는다.

36) 冊床 : A Book table, 文匣 : A piece of furniture with drawers and pigeonholes-for

척상)”은 그 어휘맥락을 생각하고 그냥 “장식된 책장(an ornamental book-case)”으로 번역했고, 나머지는 본래 『옥중화』에서 제시된 바대로 각 물품들의 문양, 빛깔, 재질 등을 드러나게 번역한 셈이다.

그러나 동서양의 문화 차이로 인해 『옥중화』의 어휘와 그에 해당하는 영역 본 「춘향」의 어휘는 다른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예를 들면 게일은 망건을 “headband”로 번역한다. 사극을 통해 조선 시대에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본 현대의 한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망건이 ‘머리카락을 걷어 올려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머리에 두르는 그물처럼 생긴 물건’임을 알기란 쉽지 않다. 상위어인 “headband”를 통해서만 망건의 구체적 쓰임과 용도를 알기 어려워 한국의 망건이 주는 이미지는 사라지고 영어권 독자는 “headband”를 그냥 머리띠 정도로 생각할 것이다. 침구나 문구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연적이란 “벼루에 먹을 갈 때 쓰는, 물을 담아 두는 그릇으로 보통은 도자기로 만들지만 쇠붙이나 옥, 돌 따위로도 만든다.” 게일은 만호연적(滿瑚硯滴)을 “a stone water-bottle”으로 번역한다. 또한 ‘벼루, 먹, 붓, 연적 따위를 넣어 두는 납작한 상자를 의미하는 비취연상’을 “green ink-stand”로 번역하고 붓을 “pen”으로 번역한다. 조선시대 필기구에 대한 삽화가 들어있지 않다면 영어권 독자는 우리가 떠올리는 것과 다른 연적, 붓, 연상을 생각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모관자(tortoise-shell button), 상투(twisted topknot), 백수주누비바지(white corded silk trousers) 등의 번역에서 알 수 있듯이 게일은 최대한 원전을 충실하게 반영하려고 하였다. 한국의 문물과 영어권 문물의 등가가 어렵기 때문에 생기는 번역상의 어려움과 이 격차를 줄이라는 게일의 노력과 문화 간 번역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옥중화』 속에 이러한 의복과 침구와 문구 이외에도 다양한 어휘들이 산재한다. 게일은 이를 충실하게 번역했다. 게일은 금이나 옥구슬 등으로 만든 일반적인 보석의 의미에서는 “jewel”로 번역하였다³⁷⁾. 흥미로운 것은 오늘날 대리

letters etc., 硯床 : An inkstone table, 筆筒 : A case for pens, 硯滴 : An ink-water dish. (Gale 1911)

37) Jewel Curtain Outlook(珠簾閣); Holds in his maw the jewel bright(如意珠); a jewelled treasure(金玉); grew flawless as the jewel(金玉처럼 자라다); Jewelled fare and dainties sweet(玉盤佳肴); jewels their time to crumble into dust(玉碎時);

석으로 번역되는 “marble”이라는 단어이다. 이중어사전³⁸⁾에서 차돌, 화반석, 화문석으로 번역되던 “marble”은 1924년 게일 『영한사전』에 처음으로 “대리석”으로 번역된다. 광한루에서 이도령과 방자가 춘향이 그네를 뛰는 모습을 보고 수작하는 장면에서 “范增(범증)의 썩친 玉(옥)이 白雪(백설)이 된”(8쪽), “荊山白玉(형산백옥)과”(9쪽) 등에서 이 옥이 흰빛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 흔히 옥으로 번역되는 “jade”는 비취색으로 푸른빛이 나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게일은 흰빛이 나는 옥을 나타내기 위해 이미 이중어사전에 jade(--/옥/옥(玉)/옥(玉))(Gale, 1924)/옥(玉)(Underwood 1925))의 풀이가 옥으로 되어 있음에도 “jade”가 아닌 “marble”로 번역하였다. 게일은 원작에서 같은 ‘옥’으로 표현되었다라든가 장면이나 색채 등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번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³⁹⁾. 또 다른 흥미로운 것은 게일이 미남을 의미하는 원문의 “관옥(冠玉)”을 “handsome as polished marble”로 번역한 점이다. 게일의 『한영저언』(1911)을 보면, 관옥은 “The finest jade-used when speaking of a handsome person with a fair complexion”으로 풀이된다. 사전에서 한국어 어휘를 풀 때와 달리, 어휘 자체의 용례를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의 얼굴빛 등을 고려하여 보다 더 영어식으로 전유하여 번역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V. 맺음말

지금까지의 논정을 정리해보면 먼저, 게일의 『옥중화』 번역과 관련된 한문 전통을 매개로 성립한 한국적 고유성의 문제를 살폈다. 즉, 『옥중화』의 소설

ten grain-measures of jewels(十斛明珠); jewelled sceptre(玉佩); In my jewel letter case(翡翠冊床文匣);

38) 영한사전 marble: 차돌/화반석/화문석(花紋石)/대리석(大理石)-Gale(1924)/대리석(大理石), 차돌, 화반석(花斑石)-Underwood(1925).

39) marble: Then, 'tis marble I see(그러하면 玉이로다); I'll tell you about marble(玉의 來歷을 들으시오); Pum Jing smashed the imperial block of marble till it became white flakes of snow(范增의 썩친 玉이 白雪이 된); Every bit of marble from the Hong Mountain(荊山白玉); if it is not gold, and not marble(금이 아니라 玉이러면); My husband, handsome as polished marble(冠玉같은)

어가 한자(어), 한문고전을 한국어통사구조 속에서 구현화한 일종의 ‘한국화된 한문고전세계’를 지닌 언어란 점을 주목했으며, 이것이 게일이 인식한 한국적 고유성이란 점을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게일이 『옥중화』의 언어표현을 영어로 옮길 때의 어려움과 그 번역 양상들을 근대초기 이중어 사전 그리고 서구인 한국학에 있어 일종의 연구사적 성격을 지닌 민족지학을 참고로 살펴보았다. 「춘향」의 번역 저본 『옥중화』는 다른 여느 <춘향전> 이본보다 상대적으로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옥중화』의 충실한 번역인 「춘향」은 게일의 <구운몽 영역본>보다 영어권 독자들이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 문물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는 문학작품이다. 게일이 번역에서 직면한 난제 중 하나는 원전 텍스트 속 한자어의 번역인데 한 번역 방식은 음역이었다. 게일이 춘향을 ‘Choonyang’으로 번역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한글표기의 실제 음성적 실현을 음역하였다. 한시의 한자의 경우, 음역과 한자의 훈을 풀이하는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였다. 한국의 사자성어와 속담의 경우 음역보다 축자역하여 영어와 다른 한국의 고유 표현을 전달하지만 전후 맥락을 통해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했다.

게일이 번역에서 직면한 또 다른 어려움은 한국문학에서 끊임없이 참조되는 중국고전 속의 인명과 지명이었는데, 이들은 외국의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고전적 사유와 문화체계와 깊이 관련된다. 게일은 이를 주로 음역하고 각주 처리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의 경우 음역과 한자의 훈을 번역하는 방식을 모두 사용하여 등장인물 이름의 문학적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가장 난해한 번역이기도 한 소리를 통한 언어유희의 경우는 한국어를 직접 음역하거나 그 뜻을 병기하는 방식, 또는 영어의 품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판소리 사설의 언어유희 느낌을 재현하고자 하였다.

『옥중화』에는 조선의 신분과 관련된 관직, 관속명, 조선의 문물 관련 소설 어휘들이 전체 어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번역은 번역자가 직면한 큰 과제이었다. 주요 관직의 경우 유사한 단어로 번역하지만 나중에 이 단어들의 음역을 병기하기도 한다. 『옥중화』에는 등장하는 수많은 조선의 관속명을 게일은 관속의 직무와 텍스트 속 해당 장면을 중심으로 의미역하기도 하고 의역하기도 하였다. 신연 행차 장면에서 길게 나열되는 조

선의 의복과 장신구들, 춘향의 방에 있는 물품 등 조선의 문물과 문화는 그 다양함과 상세함으로 인해 게일의 번역의 어려움을 짐작하게 한다. 문화 차이로 인해 번역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사라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게일은 원전을 최대한 충실하게 반영하려고 노력한 점을 엿볼 수 있었다.

본고의 목적은 한국적 고유성이 담긴 『옥중화』의 언어 표현과 소설 어휘들을 게일이 번역할 때의 지향점과 번역 실천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게일은 『옥중화』의 한국적 고유성, 원전이 보여주는 고전 세계의 언어세계, 한국화된 한문고전세계를 번역으로 재현하고자 했다. 러트와 *The Korea Magazine*의 편집자들이 밝혔듯이 게일의 「춘향」이 『옥중화』에 대한 완역이고 “충실한 번역(faithful translation)”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원전 텍스트의 내용이 삭제, 변용, 확대되는 부분이 있었다. 더불어 게일의 번역과 관련하여 서구인의 민족지 속에서 서구어로 재현되는 문화번역의 전반양상을 보다 구체적이며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 작업이 수행된 이후 도출될 문화번역에 관한 심층적 고찰은 이 영역본의 또 다른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첨부자료 1】 이중어사전 약호 및 서지사항

1. Ridel 1880: Les Missionnaires de Corée, de la Société des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 『한불즈던韓佛字典』(*Dictionnaire Coréen-Français*), Yokohama : C. Lévy Imprimeur-Libraire, 1880
2. Underwood 1890: Horace Grant Underwood, 『韓英字典한영즈던』(*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Yokohama: Kelly & Walsh; London: Trubner & Co., 1890.
3. Scott 1891: James Scott, *English-Corean dictionary: being a vocabulary of Corean colloquial words in common use*, Corea: Church of England Mission Press, 1891.
4. Gale 1897: James Scarth Gale, 『韓英字典한영즈던』(*A Korean-English Dictionary*), Yokohama: Kelly & W alsh, 1897.
5. Gale 1911: James Scarth Gale, 『韓英字典』(*A Korean-English Dictionary*), Yokohama: The Fukuin Printing CO., L'T., 1911.
6. Jones 1914: George Heber Jones, 『英韓字典영한즈던』(*An English-Korean dictionary*), Tokyo, Japan: Kyo Bun Kwan, 1914.
7. Gale 1914: James Scarth Gale, 『韓英字典』(*A Korean-English dictionary(The Chinese Character)*), Yokohama: The Fukuin Printing CO., L'T., 1914.
8. 조선총독부 1920: 朝鮮總督府 編, 『朝鮮語辭典』, 朝鮮總督府, 1920.
9. Gale 1924: James Scarth Gale, 『三千字典』(*Present day English-Korean: three thousand words*), 京城: 朝鮮耶蘇教書會, 1924.
10. Underwood 1925: Horace Grant Underwood & Horace Horton Underwood, 『英鮮字典』(*An English-Korean Dictionary*), 京城: 朝鮮耶蘇教書會, 1925.
11. Gale 1931: James Scarth Gale, 『韓英大字典』(*The Unabridged Korean-English Dictionary*), 京城: 朝鮮耶蘇教書會, 1931.

【첨부자료 2】 게일 『韓英字典』(1911) 수록 「언문 대조 일람표」

A Table of the Native Script (*Unmun*) With Equivalent

아 a	사 sa	바 pa, *ba	마 ma	라 la	다 ta, *da	나 na	가 ka, *ga	ㄱ k, *g
야 ya	샤 sya	바 pya, bya	마 mya	라 lya	다 tyā, dya	냐 nya	가 kya, gya	ㄴ n
어 ö, ü	서 sö, sü	머 pö, bö, bü	머 mö, mü	러 lö, lü	터 tö, tü, dö, dü	너 nö, nü	거 kö, kü, gö, gü	ㄷ t, d
여 yö, yü	셔 syö, syü	머 pyö, pyü, byö, byü	머 myö, myü	려 lyö, lyü	터 työ, tyü, dyö, dyü	너 nyö, nyü	거 kyö, kyü, gyö, gyü	ㄹ l, n, r
오 o	소 so	보 po, bo	모 mo	로 lo	도 to, do	노 no	고 ko, go	ㅁ m
요 yo	쇼 syo	보 pyo, byo	모 myo	로 lyo	도 tyo, dyo	노 nyo	교 kyo, gyo	ㅂ p, b
우 u	수 su	부 pu, bu	무 mu	루 lu	두 tu, du	누 nu	구 ku, gu	ㅅ s, t
유 yu	슈 syu	부 pyu, byu	무 myu	루 lyu	두 tyu, dyu	누 nyu	규 kyu, gyu	ㅈ ch, j
으 eu	스 seu	브 peu, beu	므 meu	르 leu	드 teu, deu	누 neu	그 keu, geu	ㅇ ng
이 i	시 si	비 pi, bi	미 mi	리 li	디 ti, di	니 ni	기 ki, gi	ㅎ h
으 a	사 sa	바 pa, ba	마 ma	라 la	다 ta, da	나 na	가 ka, ga	
과 kwa	과 kwa	하 ha	파 p'a,	타 t'a	카 k'a	차 ch'a	자 cha,*ja	
꺠 k'wö, k'wü	꺠 k'wö, k'wü, gwö, gwü	하 hya	파 p'ya,	타 t'ya	카 k'ya	차 ch'ya	자 cha, jya	
꺡 t'wa	꺡 t'wa, dwa	히 hō, hū	피 p'ö, p'ü,	티 t'ö, t'ü	키 k'ö, k'ü	치 ch'ö, ch'ü,	지 chö, chü, jö, jü	
화 hwa	화 hwa, dwa	히 hyö, hyü	피 p'yö, p'yü,	티 t'yö, t'yü	키 k'yö, k'yü	치 ch'yö, ch'yü	지 chyö, chyü, jyö, jyü	
꺢 hwö, hwü	꺢 hwö, hwü, swö, swü	호 ho	포 p'o,	토 t'o	코 k'o	초 ch'o	조 cho, jo	
기 g	와 wa	호 hyo	포 p'yo,	토 t'yo	코 k'yo	초 ch'yo	조 chyö, jyo	
기 d	위 wö, wü	후 hu	푸 p'u,	투 t'u	쿠 k'u	추 ch'u	주 chu, ju	
기 b	꺣 chwa, jwa	휴 hyu	푸 p'yu,	투 t'yu	쿠 k'yu	추 ch'yu	쥬 chyü, jyu	
기 s	꺣 chwö, chwü, jwö, jwü	호 heu	포 p'eu,	토 t'eu	코 k'eu	초 ch'eu	쥬 cheu, jeu	
기 j, tj	꺣 ch'wa, ch'wö, ch'wü	히 hi	피 p'i,	티 t'i	키 k'i	치 ch'i	지 chi, ji	
	꺣 ch'wö, ch'wü	하 ha	파 p'a,	타 t'a	카 k'a	차 ch'a	자 ch'a, ja	

* 음절의 초두(begining), 단어 내(the body of word)에서 생기는 k, t, p 그리고 ch 발음은 한국어에서 g, d, b, 그리고 j로 종종 변화된다.

❖ 참고 문헌

- 권순궁, 한재표, 이상현, 「『게일문서』(*Gale, James Scarth Papers*) 소재 <심청전>, <토생전> 영역본의 발굴과 의의」, 『고소설연구』 30, 한국고소설학회, 2010.
- 권순궁, 「한국 고전소설의 외국어 번역 양상과 의미-J.S.게일의 <토생전> 번역을 중심으로」, 『코기토』 77,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2015.
- 김태준, 박희병 교수, 『증보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192쪽.(『朝鮮小說史』, 清進書館, 1933; 증보판: 學藝社, 1939).
- 러시아대장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역, 『국역 한국지』, 전광사업사, 1984(О п и с а н и е К о р е и , St-Pétersbourg, 1900, 3).
- 문순희, 「19세기 말 20세기 초 서구인이 본 기생: 서구인의 견문록에 나타난 기생관련 기록을 통하여」, 『열상고전연구』 29, 열상고전연구회, 2009.
- 샤를르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한국교회사연구소, 1980(C. Dallet, *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 Paris, 1874).
- 안자산, 『조선문학사』, 한일서점, 1922.
- 오윤선, 「춘향전 영역본의 고찰」, 『판소리연구』 23, 판소리학회, 2004.
- _____, 「韓國 古小說 英譯의 樣相과 意義」,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_____, 『한국 고소설 영역본으로의 초대』, 지문당, 2008.
- 윤애선·이은령·김민택·서민정, <웹으로 보는 한영자전-1911 v.10[D-2008-000027] (<http://corpus.fr.pusan.ac.kr/dicSearch>)
- 유영식 편, 『착한 목자 : 게일의 삶과 선교』 1~2, 도서출판 진흥, 2013.
- 이만열·육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III,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7.
- 이상현, 「게일의 한국고소설번역과 그 통국가적 맥락 - 『게일유고』(*Gale, James Scarth Papers*) 소재 고소설관련 자료의 존재양상과 그 의미에 관하여」, 『비교한국학』 22(1), 국제비교한국학회, 2014.
- _____, 「<춘향전> 소설어의 재편과정과 번역: 게일(James Scarth Gale) <춘향전> 영역본(1917) 출현과 그 의미」, 『古小說 研究』 30, 한국고소설학회, 2010.
- _____, 「동양 미문화의 표상 일부다처를 둘러싼 근대 <구운몽> 읽기의 세 국면-스콧게일 김태준의 <구운몽> 읽기」, 『동아시아고대학』 15, 동아시아고대학회, 2007.
- _____, 「『조선문학사』출현의 안과 밖 : 재조 일본인 고소설론의 근대 학술사적 함의」, 『일본문화연구』 40집, 동아시아일본학회, 2011
- _____, 『한국고전번역가의 초상, 게일의 고전학 담론과 고소설 번역의 지평』, 소명, 2013.

- 이상현, 이은령, 「19세기 말 고소설 유통의 전환과 ‘민족지’로서의 고소설: 모리스 쿠랑 『한국서지』 한국고소설 관련 기술의 근대 학술사적 의미」, 『비교문학』59집, 한국비교문학회, 2013.
- 이진숙, 이상현, 「게일(J.S.Gale)의 『옥중화』 번역의 원리와 그 지향점—J. S. Gale, “Choon Yang”(The Korea Magazine 1917.9~1918.8)에 누락·변용된 『옥중화』 속 언어표현의 의미」, 『비교문학』65, 한국비교문학회, 2015.
- 임상석, 「한문과 고전의 분리, 번역과 국한문체 — 게일의 『유몽천자(鬮蒙千字)』 연구」, 『고전과 해석』16, 고전문학한문학회연구학회, 2014.
- 장효현, 「구운몽 영역본의 비교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6, 고려대학교BK21 한국학연구원, 2004.
- _____, 「한국고전소설영역의 체문제」, 『한국고전소설사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 정규복, 「구운몽 영역본考 - Gale 박사의 The Cloud Dream of the Nine」, 『국어국문학』 21, 국어국문학회, 1959.
- 제임스 게일, 신복룡 옮김, 『전환기의 조선』, 집문당, 1999(*Korea in Transition*, New York : Eaton & Mains, 1909).
- 최윤희, 「『The Korea Magazine』의 「한국에서 이름난 여성들」 연재물에 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37, 비교문화연구소, 2014.
- 황호덕 · 이상현 편찬, 『한국어의 근대와 이중어사전』 I ~XI, 박문사, 2012.
- 황호덕 · 이상현, 「게일(J.S.Gale), 한영사전(1897~1931): ‘한국어’의 새로운 형상을 만든다」, 부산대 점필재연구소 고전번역학 센터 편, 『동아시아, 근대를 번역하다: 문명의 전환과 고전의 발견』, 점필재, 2013.
- 호머 헐버트, 신복룡 역, 『대한제국멸망사』, 집문당, 1999(*The Passing of Korea*, New York: Doubleday, 1906).
- ALLEN, H. N. *Korean Tales - Being a Collection of Stories Translated from the Korean Folk Lore*, New York & London: G. P. Putnam's Sons, the Knickerboker press, 1889.
- GALE, J. S., “Choongyang”, *The Korea Magazine*, 1917.9-1918.7(소장처: 국회도서관 자료 형태: 1 microfilm; 35mm).
- _____, *Korean Folk Tales — Imps, ghosts and fairies*, New York : J. M. Dent & Sons, 1913.
- _____, *Korean Grammatical Forms*, Seoul: The Korean Religious Society, 1916
- _____, trans, *The Cloud Dream of the Nine: A Korean novel, story of the times*

- of the Tangs of China about 840 A.D.*, London: Daniel O'Connor, 1922.
- _____, "The Influence of China upon Korea,"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Royal Asiatic Society* 1, 1900.
- _____, "Korean Literature(1) -How to approach it", *The Korea Magazine* 1917. 7, pp. 297~298.
- _____, "Notes on relation to Cloud Dream of Nine-Introduction", Gale, James Scarth Papers【Box8】
- RUTT, R., *James Scarth Gale and his History of Korean People*, Seoul : the Royal Asiatic Society, 1972.
- RUTT, R. & KIM, Chong-un, *Virtuous Women: Three Masterpieces of Traditional Korean Fiction*,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974.

❖ ABSTRACT

Korean Characteristics of *OkJoongHwa*
and J. S. Gale's Translation Practices in "Choon Yang"

Lee, Sang Hyun · Lee, Jin Sook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ranslated individual words in J. S. Gale's "Choon Yang" in comparison with its original *OkJoongHwa*(『獄中花』) while referring to early modern bilingual dictionaries and missionaries' ethnography. Gale faced a lot of translation difficulties because the source text had a very different cultural system from the object text. *OkJoongHwa* was a Korean pansori novel which meant it included many Korean characteristics. However, Gale considered its Korean characteristics were deeply connected with Chinese classics. Even famous people and place names cited from the Chinese classics in *OkJoongHwa* represented the Korean thinking. Gale tried to faithfully translate the source text as much as possible whether the words were Chinese or Korean. In this paper, we deal with mostly various translation aspects of the Chinese-letter words in *OkJoongHwa*.

Gale's first method to translate words made of Chinese Character is transliteration, the examples of which are the name of Chinese famous people and places, and Chinese poems. The second method is to parallel transliteration and English interpretation equivalent to the Chinese Character. The examples are the names of main characters like "Spring Fragrance or Choonyang," "Mongyong, or Dream-Dragon" and in his translation of word play in *Osa* (Commissioner), or *Kamsa* (Governor), *kaiksa* (a dead beggar). The third is literal translation of Chinese idiomatic phrases as Gale translated 侵魚落雁 into "She'd make the fishes to sink and the wild-geese to drop from the sky." The fourth is a little free translation of the title of public office, the various names of Korean yamen servants and the unique Korean clothing and ornaments. We expect Gale's many translation difficulties as we can see the translated long list of yamen clerks and Korean clothing and ornaments.

After our investigation of his translation practices in "Choon Yang" we conclude that he tried to translate its literary language very faithfully though he could not

avoid inevitable loss caused by the cultural difference involved in two languages. Gale's "Choon Yang" contributed to introducing the uniqueness of the classical Korean novel and Korean culture to the world more than any other English translation works of that time through his faithful translation.

Key Words

『옥중화』, 「춘향」, 어휘 번역, 게일, 『코리아 매거진』

OkJoongHwa, "Choonyang", vocabulary translation, J. S. Gale, *The Korea Magazine*

논문접수일: 2015년 02월 10일

심사완료일: 2015년 03월 10일

게재확정일: 2015년 03월 16일